

2023 서울특별시의회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유보통합 대응 서울시 보육의 질 향상과 영유아반 분리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관한 연구

2023. 10. 25.



서울특별시의회
Seoul Metropolitan Council

제 출 문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귀하

이 보고서를 「유보통합 대응 서울시 보육의 질 향상과 영유아반 분리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관한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3. 10. 25.

- 연구기관 : 사단법인 미래복지경영
- 책임연구원 : 이준우 (강남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미래복지경영 사회복지연구소장)
- 연구원 : 이상희 (동국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부교수)
박윤조 (여주대학교 심리재활치료과 조교수)
정재은 (동양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김수정 (미래복지경영 사무총장, 미래복지경영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위원)
- 보조연구원 : 고희태 (미래복지경영 부장, 미래복지경영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
유수정 (미래복지경영 과장, 미래복지경영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

연구 요약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유보통합의 궁극적 목표가 모든 영유아에게 양질의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여 출발선의 평등을 보장하고, 영유아와 부모, 교사 등 관련자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본 연구에서는 유보통합의 궁극적 목표를 바탕으로 통합교사에게 요구되는 역량 중심의 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서울형 통합교사 양성기준 및 자격체계와 통합교사 양성을 위한 재교육과정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서울시 보육의 질 향상과 영유아반 분리 운영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아울러 이를 실현해 낼 수 있는 서비스 체계 및 영유아 ‘교육+보육’ 융합 기관 모델 제시를 모색하고자 함.

2. 연구의 배경 및 방법

-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유보통합의 단계적 추진을 국정과제로 제시함에 따라 유보통합 추진의 두 번째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으며,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이원화된 서비스 체계를 단계적으로 통합할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를 국정과제에 ‘관계부처와 함께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운영하여 단계적으로 유보통합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지난 30여 년 동안 유보통합의 가장 핵심 쟁점은 중앙부처의 일원화라고 할 수 있으며, 신규 자격취득자를 위해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양성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음.
-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 자격제도는 근거법이 다르고,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유치원 및 보육교사 자격구분과 자격부여 방식, 이수과목에 있어 차이가 있음.

3. 연구의 범위

가. 연구 내용

- 1) 서울시 보육교사 양성·자격 현황 실태 분석
- 2) 보육 현장의 통합 교사 양성 및 전환 관련 수요 예측

- 3) 서울시 보육교사를 위한 통합교사 교육과정 개발
- 4) 통합기관 유형별 교사 교육 과정(안)
- 5) 영·유아반 분리 운영 대응 현행 어린이집 재편 방안
- 6) '교육+보육' 융합 서비스 체제 및 시설 모델 제안

나. 연구 범위

- 본 연구는 서울시 유아교육과 영유아 보육 영역에서 이뤄지는 유보통합으로 연구 범위를 한정하며 현행 중앙정부(교육부) 차원의 유보통합 정책적 범위 내에서의 효과적, 효율적 접근 모색에 주안점을 두고자 하였음.

4. 주요연구 실행

-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보육교사 양성·자격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유보통합의 대상자가 될 수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선정하여 질적 조사방법인 초점집단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양적연구방법을 활용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교차분석을 통해 빈도, 비율, 평균 및 변수 간 관계를 확인하였음
- 수집된 자료들을 주제 분석을 통해 수요예측 및 서울형 통합교사 전환 교육과정 개발(안) 도출에 활용하였으며, 영·유아반 분리 운영 대응을 위한 현행 어린이집 재편 방안과 서울형 '교육+보육' 융합 서비스 체제 및 시설 모델을 제시하였음.

II. 전문가 대상 초점집단인터뷰 분석 결과

- 보육 현장의 전문가 6인과 학계의 전문가 3인을 대상으로 초점집단인터뷰를 실시하여 결과 분석 후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설문지 문항을 구성함.
- 설문지 문항 구성 영역은 유보통합의 필요성과 통합교사 양성 및 전환 관련 의견 6문항, 통합교사 교육과정 개발 관련 의견 4문항, 통합기관 유형별 교사교육과정(안) 7문항, 영유아반 분리운영 대응 현행 어린이집 재편 방안 7문항, '교육+보육' 융합서비스 체제 및 시설 모델 2문항, 기타 유보통합 관련 의견 4문항의 총 30문항으로 최종 구성함.

Ⅲ. 유보통합 필요성 및 보육현장의 통합교사 양성 및 전환

- 유보통합은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정부의 국정과제로 아동의 평등한 출발과 공정한 기회를 제공해야 함. 특히,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직원들은 영유아 교육 및 보육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질 격차 해소를 위해서 유보통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 유보통합을 통해 새롭게 대두될 가칭 ‘통합교사’의 새로운 명칭에 대한 의견은 매우 다양하였음.
- 유보통합에 따른 자격증의 종류 및 급수에 따른 통합교사 전환 기준은 현행 유치원 교사 자격 기준으로 최소 학력기준을 상향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현직 유치원교사/보육교사들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격증의 종류 및 급수, 경력, 학력에 따라 재교육 편성시간 배정에 있어서 차등을 둘 필요가 있음.
- 서울시 통합교사에게 요구되는 기본 역량은 현장실무능력, 사회공감능력, 의사소통능력, 의사소통능력으로 통합교사 교육과정에 반영될 필요가 있음.

Ⅳ. 서울시 보육교사를 위한 통합교사 교육과정 개발

- 서울시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직원들은 유보통합에 따른 통합교사 재교육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으며, ‘영유아-교사 상호작용’, ‘인성, 건강, 안전 등 생활중심교육’, ‘영유아의 문제행동 지도 및 교육’, ‘학부모 상담’ 등을 재교육과정구성 시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함. 이러한 내용들은 통합교사 교육과정 개발 시 체계적인 요구 수렴을 통해 반영될 수 있어야 함.
- 서울형 통합교사 재교육과정은 보육 및 교육 시간 공백을 최소화하여 주중 야간 혹은 주말에 편성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현장에 있는 교사들은 각종 평가 및 운영지침에 따른 매뉴얼에 따라 교육 및 보육을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국공립 어린이집 매뉴얼, 평가제 매뉴얼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Ⅴ. 통합기관 유형별 교사 교육과정(안)

- 유보통합 추진에 따른 현직 유치원교사/보육교사 대상 통합기관 유형별 자격전환 교사교육과정은 다각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며 현직교사의 자격을 하나의 체계로 전환하는 것은 어려움이 따르나 필요성에 대한 공감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 현 정부에서는 “첫 출발부터 공정하고 질 높은 교육”이라는 슬로건으로 국정과제 안에 유보통합을 제시하고 교육부 업무계획으로 포함하였기에 자격 전환 재교육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기고 있음. 더불어 (3,4년제) 정규대학의 유아교육과나 (3,4년제) 정규대학의 아동 및 보육 관련학과와 같이 학교차원의 학과중심으로 대학에서 재교육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음.
- 교사 자격 전환 비용 부담은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있으며, 재교육과정 기간은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적합하다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자격 전환 재교육과정 운영은 대면교육 보다는 비대면교육을 선호함.
- 현직 유치원교사·보육교사 대상 자격 전환을 위한 통합기관 유형별 교사교육과정 내용은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했을 때 영아발달 및 영아지도, 영아실습, 통합 교육과정 및 연계, 통합기관 이해, 부모·가족·지역사회·사회환경, 장애아·특수아동 이해 및 지도 모두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했을 때 유아 발달 및 유아지도, 통합 교육과정 및 연계, 통합기관 이해, 교직 관련(교직이론, 교직소양), 교육실습(유아실습), 장애아·특수아동 이해 및 지도 모두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음. 이러한 결과는 유보통합에 따른 교사의 전문성을 위해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 모두 스스로 역량을 강화하고 배우고 성장하고자 함을 의미함. 또한, 과반수 이상이 자격 전환 재교육과정 이수만으로 자격 전환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으로 나타남.

VI. 영·유아반 분리운영 대응 현행 보육시설 재편 방안

- 기존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다양한 유형을 재편하여 기관의 분리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고 있음. 특히, 영아(만0세-2세)와 유아(만3-5세) 분리 운영을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체계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기관운영의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기관 재편 시 운영시간과 운영일수는 주 5일 반일반과 종일반을 기준으로 수요자인 영유아와 학부모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기관 재편 시 기관의 적정규모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관의 규모와 유형을 고려해야 하며 교육청을 중심으로 일괄적인 설립 인가 기준이 필요함.
- 기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전환은 영아와 유아를 위한 기관의 분리와 국공립과 민간의 분리를 통해 원운영의 자율성을 유지하며 학부모가 선택할 수 있어야 함.

Ⅶ. 기타 유보통합 관련 의견

- 유보통합을 통해 아동과 부모가 모두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 모든 아동의 건전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기를 기대함.
- 유보통합을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근무환경 차이를 해소하고, 교사의 근무여건이 개선되길 기대함.
- 유보통합의 문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간의 단순한 통합이 아니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직원, 회계시스템, 관련 인사, 관련 환경 등 복합적이고도 광범위한 격차해소의 과제가 남아있기에 단기적인 시행보다는 장기적인 계획 아래 부작용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착륙시키는 방안이 강구되길 기대함.
- 유보통합과 함께 아동중심, 놀이중심의 누리과정과 관련한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과 교사를 위한 힐링 프로그램이 서울시의 특화 프로그램으로 개발되기를 기대함.
- 유보통합에 따른 자격 전환 유예 기간은 2년에서 3년 정도가 적합함.

Ⅷ. ‘교육+보육’ 융합 서비스 체계 및 시설 모델 제안

- ‘교육+보육’ 융합 서비스 체계 및 시설 모델 구축을 위해 ‘영유아 연령(영아, 유아, 영유아혼합 등)’, ‘교사고용 및 자격’ 204명(39.1%), ‘수요자(영유아와 학부모)’가 고려되어야 함.
- 영아와 유아의 발달적 차이를 인정하고 지금까지 유지되어 오던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차이를 새로운 모델 체제에 반영하기를 희망함. 즉,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개별 영유아와 가정의 다양성에 출발하였기 때문에 다양성의 강점을 살리면서 공공성을 강화하는 형태로 구축되어야 할 것임.

Ⅸ. 결론

- 유아교육과 보육은 오랜 기간 서로 다른 색깔을 가지고 발전해온 분야이므로, 서로의 특성을 무리하게 축소하기보다는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점진적인 방식을 추구해야 함. 이 과정에서 교사 양성기준과 자격체계에 대한 점진적인 통합이 이루어져야 하며 두 분야의 상향 평준화를 지향해야 함.
- 유보통합에 따른 서울형 ‘교육+보육’ 융합 서비스 체계 및 시설 모델은 영유아교육을 ‘희망’하는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편성과 평등성, 자율성이 확보된 생애 초

기의 공정한 출발을 보장하며, 사립과 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적이고 균형적인 발전으로 공공성을 강화해야 함. 따라서 0~2세 영아학교와 3~5세 유아학교를 기초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설립유형을 고려하여 단계적 통합이 이루어져야 함.

목 차

I. 서론	1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배경 및 방법	3
가. 유보통합 추진 배경 및 경과	3
나. 유보통합 주요 쟁점	4
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자격제도 및 양성교육과정	5
라. 아동권익 관점의 유보통합 추진 방안 및 실행 로드맵	16
3. 연구의 범위	20
가. 연구의 내용	20
나. 연구의 범위	21
4. 주요 연구 실행계획	21
가. 현황 조사 및 분석	21
나. 연구방법 및 추진방법	22
다. 추진일정	23
II. 전문가 대상 초점집단인터뷰 분석 결과	24
1. 연구방법	24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25

3. 연구참여자	26
4. 전문가 대상 초점집단인터뷰 분석 결과	27
가. 현장 실무자	27
나. 학계 전문가	40
5. 설문지	48
Ⅲ. 유보통합 필요성 및 보육현장의 통합교사 양성 및 전환	50
1. 유보통합의 필요성	50
2. 서울시 통합교사에게 요구되는 기본 역량	62
Ⅳ. 서울시 보육교사를 위한 통합교사 교육과정 개발	63
1. 서울형 통합교사 재교육과정의 필요성	63
2. 서울형 통합교사 재교육과정 구성 시 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	64
3. 서울형 통합교사 재교육과정의 편성	65
4. 서울형 통합교사 재교육과정 구성 시 참고할 만한 매뉴얼	65

V. 통합기관 유형별 교사 교육과정(안) 67

- 1. 통합기관 유형별 자격전환 재교육 교사교육과정의 필요성 67
- 2. 통합기관 유형별 자격전환 재교육 교사교육과정 운영 주관기관 .. 67
- 3. 통합기관 유형별 자격전환 재교육 교사교육과정 비용 부담 68
- 4. 통합기관 유형별 자격전환 재교육 교사교육과정 운영기간 69
- 5. 통합기관 유형별 자격전환 재교육 교사교육과정 운영 방법 69
- 6. 통합기관 유형별 자격전환 재교육 교사교육과정 내용 70
- 7. 통합기관 유형별 자격전환 재교육 교사교육과정 평가 72

VI. 영·유아반 분리 운영 대응 현행 보육시설 재편 방안 73

- 1. 기관 재편 후 분리운영 필요성 73
- 2. 기관 재편 후 분리운영 시 영유아 연령별 적합한 반구성 74
- 3. 기관 재편 후 분리운영 시 영유아 연령 구분 75
- 4. 기관 재편 시 운영시간과 운영일수 76

5. 기관 재편 시 기관의 적정 규모	77
6. 기관 재편 시 설립 인가 기준	78
7. 기존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전환 방향	79
VII. 기타 유보통합 관련 의견	80
VIII. ‘교육+보육’ 융합 서비스 체계 및 시설 모델 제안	84
1. ‘교육+보육’ 융합 서비스 체계 및 시설 모델 구축 시 고려되어야 할 요소 ..	84
2. ‘교육+보육’ 융합 서비스 체계 및 시설 모델	84
IX. 결론	86
1. 연구의 결론	86
2. 정책 제언	89
참고문헌	93
부록	96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유보통합의 성공적 추진과 안착은 현 정부의 당면과제로서 오랜 기간 별도의 형태로 지속되어온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서비스 구조와 성격을 영유아의 복지 향상에 최적화 된 교육과 보육의 융합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에 본 연구는 주목함.
- 유보통합의 궁극적 목표가 모든 영유아에게 양질의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여 출발선의 평등을 보장하고, 영유아와 부모, 교사 등 관련자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최은영, 2015)할 때, 가장 우선적인 고려사항은 ‘서비스 제공자의 역량과 자격에 관한 것’과 ‘교육과 보육 서비스’를 담아낼 새로운 형태의 ‘융합 서비스 기관 모델 개발’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음. 특히 교육과 보육이 인간서비스(human service)의 핵심임을 감안하면 서비스 제공 인력의 양성 및 재보수는 물론이고 이들의 전문성 확보를 포함한 모든 행위를 수행할 기관 체계 마련은 필수불가결한 사항임.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보통합의 궁극적 목표를 바탕으로 통합교사에게 요구되는 역량 중심의 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서울형 통합교사 양성기준 및 자격체계와 통합교사 양성을 위한 재교육과정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서울시 보육의 질 향상과 영유아반 분리 운영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아울러 이를 실현해 낼 수 있는 서비스 체계 및 영유아 ‘교육+보육’ 융합 기관 모델 제시를 모색하고자 함. 이를 위해 면밀한 현황 분석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임.
- 한편 서울특별시는 대한민국의 수도로서 단일 시·군·구 가운데서 가장 많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소재하고 있으며, 교육과 보육을 수행하고 있는 전문 인력의 수도 많기 때문에 유보통합에 따른 통합교사와 새로운 형태의 ‘교육+보육’ 융합 서비스 전달체계 및 기관의 역할과 기능에 관한 논의에 따른 과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됨. 서울시 모델은 타 지자체에 급속히 과급될 것이며 벤치마킹의 대상이 될 것임.
- 영유아기는 신체, 언어, 인지, 사회, 정서적으로 급속한 발달이 이루어지는 결정적인 시기로, 발달심리학자들은 영유아 시기에 제공되는 환경이 건강한 인간으로서의 성장과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꾸준히 강조해 왔음.
- 이러한 영유아기를 담당하는 교사는 영유아의 발달수준과 기질에 따른 개별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여 초등학교 이상 상위 학급의 교사와는 구별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영유아에게 최상의 돌봄(care)과 교육(education)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유아교육과 보육은 교육과 보호·양육을 합친 개념적 차원에서 일원화하여 체계화하

고 있는 것이 세계적 동향이며, OECD 국가들은 영유아기의 교육과 보호에 대한 정책에 있어 질 높은 보호·양육과 교육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강조하고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의 영유아기 교육 및 보육 체계는 취학 전 유아의 교육에 중점을 둔 유치원과 영유아의 보육에 중점을 둔 어린이집의 이원화 체계를 유지해 왔음.
- 영유아를 위한 보호·양육과 교육은 두 개의 분리된 활동이 아니며, ‘보호 및 양육’이 없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고, ‘교육’ 없이 진정한 ‘보호 및 양육’이 제공될 수 없음(Caldwell, 1991; Smith, 1996a, 1996b).
- 우리나라에서 유보통합에 대한 논의는 새 정부 출범 후 ‘만 0~5세 보육·유아교육 국가책임제를 통해 출생 이후 영유아 단계의 출발선에서 공정한 기회 보장’의 일환으로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서비스 체계를 단계적으로 통합할 계획을 발표하면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정과제에 ‘관계부처와 함께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운영하여 단계적으로 유보통합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음.
- 유보통합은 영유아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 중요한 과제이며, 사회적으로 유보통합에 관한 관심이 높아 이와 관련하여 최근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음(고재욱, 2022; 공병호, 2022; 문미옥, 2022; 박명하, 2022, 송경희·김태연, 2023; 이귀옥·한수진, 2023; 이선애·강혜경, 2023; 임수진·박수경, 2022; 정효정, 2022).
- 유보통합은 영유아의 생애 출발점에서의 기회 평등과 아동권리 보장, 영유아 교사들의 직업에서의 평등이라는 전제를 충족시키기 위해 출발한 정책으로서, 영유아기 교육과 보육은 양질의 교육과 안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지원하고 책임지도록 해야 함.
- 교육과 보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기 때문에 학부모의 안심과 만족을 위한 교육과 보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통합교사(가칭)의 교육과 양성이 필요함.
- 그러나 유아교육과 보육의 교사 통합은 양성기관과 제도, 자격증 등의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장기간에 걸쳐 해결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서로의 특성을 무리하게 축소하기보다는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점진적인 방식을 추구해야 함.
- 이 과정에서 교사 양성기준과 자격체계에 대한 점진적인 통합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두 기관(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공동교육과정인 누리과정과 초등교육의 연계 및 교사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어느 한쪽을 다른 쪽에 맞추려는 시도가 아닌 두 기관의 상향평준화를 목표로 해야 함(송경희·김태연, 2023).
- 그러므로 교사 재교육을 통한 통합교사의 자격을 갖추도록 하는 자격통합을 위한 재교육과 다양한 연수에 대한 통합계획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공정과 상식의 원리에 기반을 두어 어떤 기관도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유보통합의 중요한 과제인 교사 통합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송경희·김태연, 2023).

연, 2023).

- 이를 위하여 서울시 보육교사 양성 자격 현황 실태와 보육현장의 통합 교사 양성 및 전환 관련 수요 예측 및 현행 유치원교사 및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법적 기본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통합기관 유형별 교사 교육과정의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기존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그리고 아동 돌봄 서비스 중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돌봄센터의 일부 사업 등을 수행하는 기관 구조와 운영 체제를 면밀하게 파악하여 융합 기관 모델 형태를 모색하는 데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2. 연구의 배경 및 방법

가. 유보통합 추진 배경 및 경과

- 유보통합은 영유아의 생애 출발점에서의 기회 평등과 아동권리 보장, 영유아 교사들의 직업에서의 평등이란 전제를 충족시키기 위해 출발한 정책임. 추진 배경과 필요성에 관한 주요 내용은 국내외 논의가 크게 다르지 않으며, 사실상 상호 유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발전적으로 논의되어 왔음.
- 취학 전 영유아 대상 교육·보육 서비스(ECEC: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국제적 동향과 흐름, 이와 관련된 국내 관련 쟁점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되는 과정에서 유아교육과 보육의 정책적 노력과 산학연 현장 및 수요자의 관심과 요구가 반영된 결과임.
- 2003년부터 본격화 된 정부의 저출산 대응으로서의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 계획」의 수립과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정과 맞물려 이루어진 출산율 제고를 위한 보육 정책의 투입과 성과가 가시화 되면서 유아교육과 보육의 '격차'에 대한 논의로 발전됨.
- 우리나라의 유보통합 추진의 배경은 노무현, 박근혜 정부의 유보통합 추진의 목적과 필요성에서 살펴볼 수 있으며, 이어서 코로나19 팬데믹과 4차 산업혁명 등 문재인 정부 5년을 경과하면서 경험한 교육과 돌봄, 나아가 복지환경의 변화와 다양한 요구가 증가되었음.
- 20여 년 동안 지속해서 연구와 토론을 거듭하면서 여론의 통일과정을 거쳐서 현장과 정부 여건에 맞추어 점차 실행에 옮기며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음(공병호, 2022).
-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유보통합의 단계적 추진을 국정과제로 제시함에 따라 유보통합 추진의 두 번째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으며, 교육부가 주최한 「제5차 교육정책 열린 대화 토론회」에서는 보건복지부의 보육업무를 교육부로 이

관하고 4년 뒤 완전 무상교육을 실현하자는 3단계 방안이 제시되었음(한국유아교육신문, 2022.05.).

- 이후 ‘만 0~5세 보육·유아교육 국가책임제를 통해 출생 이후 영유아 단계의 출발선에서 공정한 기회 보장’의 일환으로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이원화된 서비스 체계를 단계적으로 통합할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를 국정 과제에 ‘관계부처와 함께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운영하여 단계적으로 유보통합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이 과정에서 교사양성체제와 교원자격에 대한 통합에 대한 충분한 의견 공유와 조정의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함.
- 아울러 현행 유보기관의 현장과 교사 자격 차이를 고려하여 담당 부처 간 교사 재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교사 재교육을 통해 통합교사의 자격을 갖추도록 하는 자격통합용 재교육에 대한 통합계획과 시행을 위한 장단기 계획이 필요할 것임.

나. 유보통합의 주요 쟁점

- 지난 30여 년 동안 유보통합의 가장 핵심 쟁점은 중앙부처의 일원화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총괄 중앙부처에 따라 법과 규정, 재정, 커리큘럼과 프로그램, 교사 자격과 양성체제, 서비스 질 모니터링, 전달체계 등 유아교육과 보육의 제반 영역들이 서로 다르게 운영되었기 때문임.
- 2012년 ‘만5세 누리과정’이 도입되기 이전의 연구들(문무경·서문희, 2012; 유희정 외, 2008; 이옥 외, 2006)이 제시한 방안은 다음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음.
 - 첫째, 기존의 이원화체제 유지 및 기능 조정
 - 둘째, 총괄부처로 모든 유보서비스 일원화(교육부, 보건복지부, 또는 제3의 부처로 통합)
 - 셋째, 연령별 일원화(0-2세와 3-5세, 또는 0-4세와 5세 등으로 분리 일원화)
 - 넷째, 기능별 일원화(각 부서의 비교우위 업무기능, 예를 들어 교육과정과 교사는 교육부가, 질 관리감독 및 재무회계는 보건복지부가 총괄 담당)
 - 다섯째, 지방정부(지자체와 교육청)로 이관하여 일원화
- 유보통합 이슈 중 하나로 신규 자격취득자를 위해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양성체제를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3가지 쟁점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신규교사의 자격취득을 위한 양성학과 및 양성교육과정을 일원화할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그 방향은 어떻게 할 것인가?
 - 둘째, 신규교사의 수업연한은 어떻게 할 것인가?
 - 셋째, 유치원 교원양성 교육과정과 보육교사 자격취득 교과목에서 차이가 있는 교

직 교과목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가?

○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위 3가지 쟁점에 대한 대안적 제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자격제도 및 양성교육과정

1)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자격제도

-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 자격제도는 근거법이 다르고,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이원화되어 있음.
- 소관 부처 및 지원체제가 완전히 이원화되어 있는 이유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서 개별적으로 유아교육 수용계획과 보육 수용계획을 수립, 추진하다 보니 체계적으로 기관을 배치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인가하는 시·군·구청장과 교육지원청 간에 업무 협력이나 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공공재로서 기능인 영유아 교육 및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고가온, 2020).
- 유아교육 및 보육제도는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으로 각각 구분되어 관리되고 있으나 아래 <표 1-1>과 같이 두 법령을 비교해보았을 때 차이점이 분명 있으나 유사점 역시 존재함.

<표 1-1> 유아교육법과 보육법 비교

구분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목적	교육 외에 학술과 문화적 전통 유지	보호와 교육 / 가정복지의 증진
대상	만 3~5세	0세부터 취학 전 아동
서비스성격	교육(보육 기능 일부 포함)	보호, 양육, 교육의 사회복지서비스
기관/시설	유아교육을 위한 학교	보호자 위탁에 의한 어린이집
책임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청), 보호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호자
기관(시설) 구분	사립, 공립, 국립	법인, 국공립, 가정, 직장 부모 협동 민간 외
설립인가	시·도 교육감 인가	시장·군수·구청장 인가
교육 및 보육과정	유치원 교육과정	표준보육과정
지도 감독	교육부 장관 - 국립 유치원 교육감 - 공·사립 유치원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 및 명령

출처: 고가온, 2020

※ 유아교육법(법률 제17080호, 2020.3.24. 일부개정) 및 영유아보육법(법률 제17209호, 2020.4.7. 일부개정) 주요내용 표로 재구성

- 유치원 및 보육교사 자격구분과 자격부여 방식, 이수과목에 있어 차이가 있음. 이를 정리하여 표로 제시하면 다음 <표 1-2>와 같음.
- 유치원교사 자격체계는 준교사-2급-1급-수석교사로 되어 있으나, 준교사와 수석교사는 자격체계 상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실제로는 2급-1급 체계를 가지고 있음(준교사는 과거 한시적으로 부여하던 자격으로 더 이상 양성하지 않고 있으며, 수석교사는 누구나 거쳐야 하는 자격은 아님).
- 보육교사 자격체계는 3급-2급-1급으로 되어 있으며, 3급의 경우 보육교사교육원을 통해 양성되고 있음.

<표 1-2> 유치원교사 및 보육교사 자격제도 비교

구분	유치원교사	보육교사
양성방식	학과중심제 {유아교육과, 아동 관련학과(일정비율)}	학점이수제
양성기관	2~3년, 4년제 대학(2급)	2~4년제(사이버·학점은행제 포함) 대학(2급), 보육교사교육원(3급)
이수과목	2급: 전공영역 50학점 이상, 교직영역 22학점 이상 (총 72학점 이상)	2급: 17과목 51학점 3급: 22과목 65학점 (교직과목 미포함)

※ 출처: 1) 유아교육법 제 22조 (교원의 자격)
2) 영유아보육법 제 21조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2)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양성교육과정

- 유치원 정교사(2급) 양성은 유아교육법 제22조(교원의 자격) 제2항에 따라 유아교육학과 졸업자와 아동 관련학과 정원의 10%가 자격을 취득하고 있으며, 유치원 정교사(2급) 자격증은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사업에 따라 입학정원(승인정원)이 관리되는 체계임.

○ 2021학년도 기준 교원양성기관 수는 다음 <표 1-3>과 같음.

<표 1-3> 유치원교사 및 보육교사 양성과정

구분	설립별	기관수	학과수	학년도별입학정원(승인인원)			
				21학년도	20학년도	19학년도	18학년도
대학교	국공립	14	14	2,981	2,981	2,981	2,981
	사립	72	79	2,176	2,188	2,229	2,183
	소계	86	93	5,157	5,169	5,210	5,164
전문대학	국공립	2	2	77	80	80	100
	사립	83	89	5,797	5,797	6,265	6,758
	소계	85	91	5,877	5,877	6,345	6,858
총계	국공립	16	16	3,058	3,061	3,061	3,081
	사립	155	168	7,544	7,985	8,494	8,941
	소계	171	184	10,602	11,046	11,555	12,022

주: 교육대학원 유아교육전공: 충신대, 한국외대(서울), 한성대, 한양대, 호서대는 제외한 숫자임.

출처: 2021년도 교원양성기관현황(누리집, 탑재용), 교육부 홈페이지.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327&boardSeq=90266&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305&opType=N> (2022.6.22. 검색)

○ <표 1-4>와 같이 2021년 기준, 유치원정교사 2급 자격증 발급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9,201명이 자격을 취득하였으며, 이중 55.5%가 전문대학 졸업자임을 알 수 있음.

<표 1-4> 유치원정교사 2급 발급현황 (2021년 기준)

(단위: 건, %)

합계	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산업대학	전공대학
9,201	2,658 (28.9)	5,105 (55.5)	1,246 (13.5)	42 (0.6)	150 (1.6)

출처: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21), 교육통계연보, 교육통계서비스 홈페이지.

<https://kess.kedi.re.kr/index> (2022.6.22 검색)

○ 보육교사는 영유아보육법 제21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제2항 제1호에 따라 전문대학뿐만 아니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으로 관련 보육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여함.

- 보육교사 신규입직으로 가능한 자격은 보육교사 2급뿐만 아니라 보육교사 3급도 있으며, 보육교사 3급은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자로서 교육훈련시설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이면 가능함. 보육교사의 연도별 자격취득 경로별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 <표 1-5>과 같음.

<표 1-5> 보육교사 연도별 자격취득 경로

(단위: 명, %)

구분	2급						3급	합계
	4년제	2~3년제	방통대	사이버대	학점은행제	소계	보육교사교육원	합계
2013	2,024 (8.0)	21,743 (28.9)	1,435 (1.9)	2,144 (2.8)	34,400 (45.7)	65,746 (87.3)	9,556 (12.7)	75,312 (100.0)
2014	6,303 (8.0)	19,94 (25.2)	1,455 (1.8)	1,933 (2.4)	41,183 (52.0)	70,821 (89.5)	8,323 (10.5)	79,144 (100.0)
2015	6,255 (12.4)	18,273 (36.1)	1,180 (2.3)	1,520 (3.0)	18,728 (37.0)	45,956 (90.9)	4,613 (9.1)	50,569 (100.0)
2016	6,369 (14.8)	15,053 (34.9)	1,186 (2.7)	1,264 (2.9)	16,617 (385)	40,489 (93.9)	2,651 (6.1)	43,140 (100.0)
2017	5,612 (10.9)	14,901 (29.0)	1,122 (2.2)	1,313 (2.6)	26,204 (51.0)	49,152 (95.6)	2,252 (4.4)	51,404 (100.0)
2018	4,615 (15.5)	13,983 (47.1)	629 (2.1)	826 (2.8)	7,918 (26.7)	27,971 (94.2)	1,711 (5.8)	29,682 (100.0)
2019	4,681 (16.5)	12,763 (45.1)	564 (2.0)	629 (2.2)	8,248 (29.1)	26,885 (95.0)	1,422 (5.0)	28,307 (100.0)
2020	5,100 (19.0)	11,262 (41.9)	426 (1.6)	667 (2.5)	8,249 (30.7)	25,704 (95.7)	1,168 (4.3)	26,872 (100.0)
2021	4,782 (18.6)	10,499 (40.9)	438 (1.7)	591 (2.3)	8,453 (32.9)	24,763 (96.4)	923 (3.6)	25,686 (100.0)

출처: 한국보육진흥원(2022). 내부자료.

- <표 1-4>, <표 1-5>와 같이 유치원교사 자격취득을 위한 최소학력은 전문대학 이상인 반면, 보육교사는 보육교사 3급 자격기준에 준해 고등학교 졸업 이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양성기관별 자격취득방식(학과제, 학점제)과 자격기준의 차이는 두 양성기관의 교사 학력 분포 차이에서도 드러남.

○ 한편, 유치원 정교사 2급 및 보육교사 2급 자격취득 이수학점 및 교과목을 비교하면 다음 <표 1-6>과 같음.

<표 1-6> 유치원정교사 2급 및 보육교사 2급 자격취득 이수학점 및 교과목 비교

유치원정교사 2급			보육교사 2급		
구분	과목	이수 학점수	영역		이수과목 (학점)
전 공 영 역	기본 이 수 과 목	21학점 (7과목) 이상	교사 인성	보육교사(인성)론, 아동권리와 복지	2과목 (6학점)
			필 수	보육학개론, 보육과정, 영유아발달, 영유아교수방법론,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음악(또는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또는 아동과학지도), 아동안전관리(또는 아동생활지도)	9과목 (27학점)
	보 육 지 식 과 기 술	선 택	아동건강교육, 영유아 사회정소지도, 아동문학교육, 아동상담론, 장애아지도, 특수아동이해, 어린이집운영관리, 영유아보육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보육정책론, 정신건강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아동간호학, 아동영양학, 보모교육론, 가족복지론, 가족관계론, 지역사회복지론	4과목 (12학점)	
교 과 교 육 영 역	교과교육론,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교과 논리 및 논술, 교과별 교수법, 교과별 교육과정, 교과별 평가 방법론	8학점 (3과목) 이상			
선 택 과 목	기본 이수과목의 잔여학점		보육 실무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보육실습	2과목 (6학점)
소계		50학점 이상		17개 과목	51학점

유치원정교사 2급			보육교사 2급			
구분	과목	이수 학점수	영역	교과목	이수과목 (학점)	
교 직 영 역	교 직 이 론	교육학개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생활지도 및 상담, 기타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			해당사항 없음	
	교 직 소 양	특수교육학개론(2학점 이상-영재교육 영역 포함), 교직실무(2학점 이상),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 이해(2학점 이상)				6학점 이상
	교 육 실 습	학교현장실습 2학점 이상(수업실습, 참관실습, 실무실습 등), 교육봉사활동 2학점(P/F제 가능) 이내 포함 가능 (18학년도 입학자)				4학점 이상

- 위의 <표 1-6>과 같이 양성교육과정의 최소 취득학점은 유치원교사 77학점 이상, 보육교사 51학점 이상으로 유치원교사의 이수 학점이 높은 편임을 알 수 있음.
- 이 중 전공영역을 살펴보면 유치원교사는 기본이수과목과 교과교육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육교사는 교사 인성, 보육 지식과 기술, 보육 실무로 구성되어 차이가 있음.
- 그러나 전공영역의 교과목명은 서로 유사한 편이며, 이수학점도 모두 50학점 내외로 거의 비슷한 수준이나, 유치원교사는 교직 영역의 교직이론, 교직소양, 교육실습 영역에서 22학점을 이수해야 하나 보육교사는 교직 영역이 없으며, 보육실습 3학점을 전공영역에서 이수하고 있어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현직교사의 서울형 통합교사 전환을 위한 재교육 과정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3) 유치원 및 보육교사의 자격, 학력 및 전공 관련 현황

① 설립유형별 자격 현황

- 2021년 기준, 유치원교사 설립유형별 자격 현황은 다음 <표 1-7>과 같음.

〈표 1-7〉 2021년 기준 유치원교사 설립유형별 자격현황

(단위: 명)

구분	계	수석교사	1급 정교사	2급 정교사	준교사
전체	46,764	23	16,592	30,141	8
국공립	18,498	22	10,204	8,271	1
사립	28,266	1	6,388	21,870	7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21). 교육통계연보, 자격별 교원 수, 교육통계서비스 홈페이지
<http://kess.kedi.re.kr/index>

○ 2021년 기준, 보육교사 설립유형별 자격 현황은 다음 〈표 1-8〉과 같음.

〈표 1-8〉 2021년 기준 보육교사 설립유형별 자격현황

(단위: 명)

구분	계	보육교사 1급	보육교사 2급	보육교사 3급
전체	236,085	163,515	69,234	3,280
국공립	51,071	34,751	15,908	397
사회복지법인	11,963	8,327	3,543	87
법인·단체	5,037	3,555	1,425	55
민간	92,908	66,111	25,343	1,437
가정	58,800	41,290	16,285	1,214
협동	686	471	203	11
직장	15,620	9,010	6,527	79

출처: 보건복지부(2021). 보육통계, 지역 및 어린이집 유형별 보육교직원 현황, 보육교사 1급, 2급, 3급 자격 현황.

○ 위의 〈표 1-7〉과 〈표 1-8〉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2021년 기준,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보육교사의 수가 유치원교사의 5배 정도임.

②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최종학력 현황

- 2017년 기준, 유치원교사의 최종학력은 다음 <표 1-9>와 같음. 3년제 전문대 졸업자와 4년제 졸업자의 비율이 유사하게 가장 많았으며, 공립유치원의 경우, 4년제 대학교 졸업자가 많았으며, 사립유치원은 3년제 전문대 졸업자가 많았음.
- 설립유형별로 살펴보면, 사립을 제외하고 4년제 대학교 졸업자가 가장 많았으며, 대도시와 중소도시는 3년제 졸업자가 많았음. 기관규모에 따라 100인 미만인 경우, 4년제 대학교 졸업자가 많았고, 100인 이상의 경우, 3년제 전문대 졸업자가 가장 많았음.

<표 1-9>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최종학력 현황

(단위: %, 명)

구분	전문대졸 (2년제)	전문대졸 (3년제)	대학교졸 (4년제)	대학원 졸	계(수)
전체	10.2	41.6	40.5	7.8	100.0 (2,224)
기관 구분					
공립	5.5	2.9	62.1	29.5	100.0 (428)
사립	11.3	50.8	35.3	2.6	100.0 (1,796)
x^2 (df)	583.3(3)***				
기관유형					
공립병설	6.2	2.9	61.9	29	100.0 (352)
공립단설	2.6	2.7	63	31.8	100.0 (77)
사립사인	11.8	51.9	33.8	2.5	100.0 (1,598)
사립법인	7	41.7	47.9	3.4	100.0 (198)
x^2 (df)	599.2(9)***				
소재지					
대도시	8.9	43.8	41.9	5.5	100.0 (880)
중소도시	9.9	42.7	39.6	7.8	100.0 (1,598)
읍면지역	13.9	33.6	39.4	13.2	100.0 (387)
x^2 (df)	35.4(6)***				
규모					
50인 미만	10.5	17.5	51	21	100.0 (317)
50인~100인 미만	10.1	38.7	40.5	10.8	100.0 (452)
100인 이상	10.1	47.7	38.2	4	100.0 (1,455)
x^2 (df)	170.0(6)***				

*** p < .001.

출처: 문무경·김은영·이운진·최효미·이재희·김근진·최은영·김희수(2017). 2017년 전국 유아교육 실태조사, 교육부·서울특별시교육청·육아정책연구소, p. 160 <표 V-1-15>.

- 2018년 기준, 보육교사의 최종학력은 다음의 <표 1-10>과 같음.
- 3년제 전문대 졸업자가 가장 많았으며, 이는 설립유형 중 직장어린이집, 담당반 중 장애아반을 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린이집의 배경 특성에 상관없이 같았음.

<표 1-10> 2018년 기준 보육교사 최종학교

(단위: %, 명)

구분	고졸	3년제 이하 대학		4년제 대학		대학원		계(수)
		재학	졸업	재학	졸업	재학	졸업	
전체	17.7	2.4	49.7	2.8	25	0.8	1.6	100.0(18,389)
시설유형								
국공립	3.9	2.3	52.7	4.2	31.1	2.3	3.5	100.0(3,181)
사회복지법인	5.2	1.9	59	2.3	28.8	0.8	1.9	100.0(2,397)
법인·단체	9.2	1	51.8	3.3	30.3	2	2.4	100.0(1,475)
민간	18.6	2.5	54.9	2.1	20.4	0.5	1	100.0(5,980)
가정	27.1	2.7	41.7	3.3	23.8	0.3	1.2	100.0(3,347)
직장	1.5	1.4	27.5	1.8	59.8	3.9	4.1	100.0(2,009)
소재지								
대도시	14.6	2.6	48.5	2.7	28.5	1.2	1.8	100.0(7,261)
중소도시	20.8	2	47.4	3.1	24	0.6	1.4	100.0(6,662)
읍·면	17.5	1.8	56.3	2.2	20.5	0.6	1.4	100.0(4,466)
규모								
20명 이하	26.6	2.7	41.9	3.3	24	0.3	1.1	100.0(3,664)
21~39명	18.1	2.5	52.4	2.4	22.8	0.7	1.2	100.0(2,505)
40~79명	14	2.3	50.8	2.6	27.2	1.1	1.9	100.0(5,768)
80명 이상	11	2.1	55.9	2.5	25.3	1.3	2	100.0(6,452)
담당반								
영아반	20.5	2.6	48.5	2.8	23.5	0.7	1.4	100.0(13,197)
유아반	8.4	2	54.8	2.7	29	1.3	1.7	100.0(4,642)
장애아반	2	1.8	38.8	2	46.1	2.5	6.8	100.0(550)

출처: 유해미(2018).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어린이집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 220, <표 IV-1-1>.

③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전공 현황

○ 2017년 기준, 유치원교사는 94.4%가 유아교육 전공자였으며, 그 다음은 아동학, 특수교육, 교육학 전공자가 일부 있었음. 관련 내용은 다음 <표 1-11>과 같음.

<표 1-11>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전공 현황

(단위: %, 명)

구분	유아 교육	아동학	특수 교육	초등 교육	중등 교육	교육학	기타	계	
전체	94.4	2.5	1.5	-	-	0.8	0.8	100.0	2,224
기관 구분									
공립	85.4	3.7	6.4	0.1	0.2	2.7	1.6	100.0	428
사립	96.5	2.3	0.3	-	-	0.3	0.6	100.0	1,796
χ^2 (df)	129.9(6)***								
기관 유형									
공립병설	85.8	4	6	0.1	0.1	2.8	1.3	100.0	352
공립단설	83.4	2.4	8.2	-	0.7	2.4	2.9	100.0	77
사립사인	96.3	2.3	0.3	-	-	0.4	0.6	100.0	1,598
사립법인	98.2	1.8	-	-	-	-	-	100.0	198
χ^2 (df)	157.9(18)***								
소재지									
대도시	95.5	2.2	1	-	-	0.6	0.6	100.0	880
중소도시	93.7	3.4	1.5	-	-	0.7	0.7	100.0	957
읍명지역	93.5	1.1	2.6	-	0.1	1.6	1.2	100.0	387
χ^2 (df)	22.7(12)*								
규모									
50인 미만	90.2	2.9	2.9	0.1	0.1	2.3	1.4	100.0	317
50인~100인 미만	94.2	2.5	1.9	-	-	1	0.5	100.0	452
100인 이상	95.4	2.5	1	-	-	0.4	0.7	100.0	1,455
χ^2 (df)	22.7(12)*								

* $p < .05$, *** $p < .001$.

출처: 문무경 외(2017). 2017년 전국 유아교육 실태조사, 교육부·서울특별시교육청·육아정책연구소, p.161, <표 V-1-16>.

- 2018년 기준, 보육교사는 유아교육 전공자가 가장 많았지만, 비율은 유치원보다 훨씬 낮았고, 아동학, 사회복지, 보육 등 다양한 전공자가 함께 존재하였음.
- 또한, 전공이 없는 보육교사교육원 출신 등 기타가 14.4%나 되었으며, 낮은 비율이지만 가정, 교육, 특수교육, 영양, 가정 전공자도 있었음. 관련 내용은 다음의 <표 1-12>와 같음.

〈표 1-12〉 2018년 기준 보육교사 전공 현황

(단위: %, 명)

구분	아동	유아 교육	사회 복지	보육	가정	간호	영양	교육	특수 교육	기타	계(수)
전체	14.7	28	10.2	9.3	1.8	0.4	0.5	1.3	0.7	14.3	100.0 (15,957)
시설유형											
국공립	18.4	36.7	10	14.7	1.8	0.1	0.3	1.2	2	7.1	100.0 (3,058)
사회복지 법인	15.4	45.8	14.6	8.1	1.1	0.3	0.2	0.8	1.8	5.5	100.0 (2,274)
법인·단체	14.6	36.7	14.9	9.2	1.4	0.2	0.2	1	1.1	7.8	100.0 (1,339)
민간	14.1	25.8	11.1	8.8	1.4	0.3	0.4	1.4	0.4	15.6	100.0 (4,866)
가정	10	19.1	8.8	1.4	0.3	0.4	1.4	1.5	0.2	20.9	100.0 (2,441)
직장	34.3	37.8	4.6	12.5	1.1	0.1	0.3	0.5	0.3	4.9	100.0 (1,979)
소재지											
대도시	16.3	27.2	9	10.4	1.7	0.4	0.5	1.2	1	14.8	100.0 (6,478)
중소도시	13.6	25.5	9.6	9.1	1.9	0.5	0.6	1.5	0.5	16.3	100.0 (5,596)
읍·면	13.9	33.9	13.3	7.8	1.6	0.3	0.5	1.1	0.5	10.2	100.0 (3,883)
규모											
20명 이하	10.3	19.4	8.7	7.9	2.2	0.7	0.9	1.5	0.3	20.7	100.0 (2,772)
21~39명	14.6	24.9	11.3	8.7	2.1	0.4	0.3	1.7	1.3	14.2	100.0 (2,119)
40~79명	19.2	33.2	11.3	10.3	1.3	0.1	0.2	1.1	1	10.1	100.0 (5,178)
80명 이상	17.2	39.3	11	1.2	0.2	0.4	0.8	0.8	8.4	8.4	100.0 (5,938)

담당반											
영아반	19.5	32.1	12.5	9	2.2	0.5	1	1.5	0.3	21.5	100.0 (11,057)
유아반	20.4	45.4	10.7	9.4	1.1	0.1	0.3	0.9	0.6	11.2	100.0 (4,361)
장애아반	15.3	16.6	13.9	5.3	1.1	0.2	0	0.4	28.9	18.3	100.0 (539)

출처: 유해미(2018).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어린이집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 221, <표 IV-1-2>.

라. 아동권익 관점의 유보통합 추진 방안 및 실행 로드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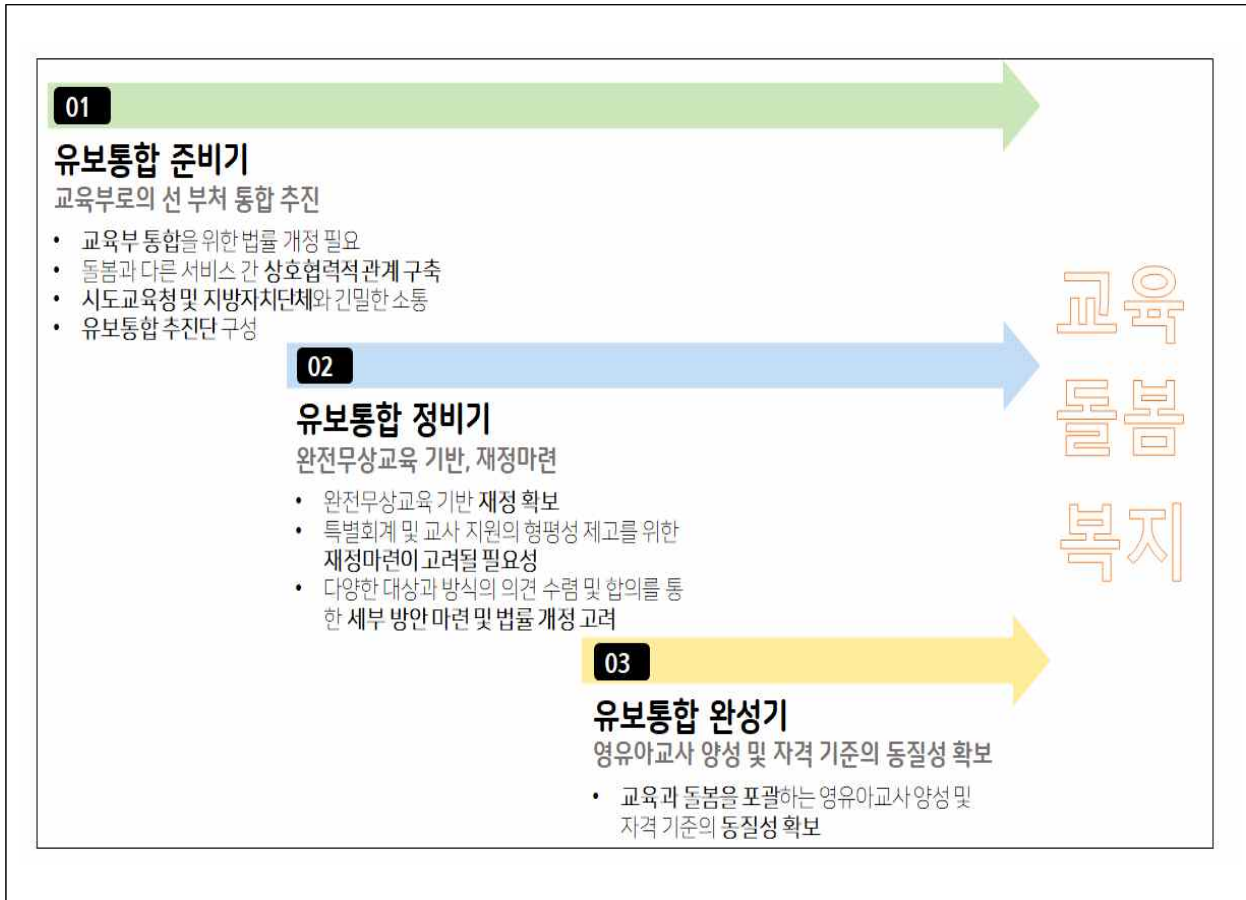
1) 아동권익 관점의 유보통합 추진 방안

- 유보통합은 만 0~5세 영유아의 출발선 평등과 유아교육·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추진되어야 하며, 서울특별시의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특별시 서울’이라는 보육 비전 실현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함. 이를 위해 영유아학교체제 기반 유보통합 정책 모색이 필요함. 정책 실현을 위한 유보통합 방향은 다음과 같음(고영미·서윤희·임수진·박수경, 2022).
 - 첫째, 완전무상교육 기반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공교육이 강화되어야 함. 학부모의 선택권과 개별 영유아의 특수성을 고려한 완전무상교육과 영유아교육의 강점인 다양성과 자율성을 살리며 공공성을 강화하는 영유아학교 체제 기반이 마련되어야 함.
 - 둘째, 놀이중심 교육 기반의 영유아학교체제 구축이 필요함. 영유아의 발달, 교육, 돌봄, 초등 이전 교육의 포괄적이며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며, 영유아의 본질인 놀이를 자연스럽게 추구하는 교육이 강화되어야 함.
 - 셋째, 모든 영유아의 출발선 평등과 최선의 이익보장 및 영유아기의 교육과 돌봄 경험 및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로 이어지는 삶의 관점에서의 경험의 연속성 보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원화 체제 간 격차를 줄이고, 두 기관 간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질적 차이를 해소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함.
 - 넷째, 부모의 일과 양육 지원을 위한 기관과 가정양육의 공적 서비스 확대와 교육과 돌봄을 결합한 질적으로 보장된 사회적 양육 및 부모의 일과 양육이 병행 가능한 기관과 가정양육 등 다양한 방식의 공적 서비스가 보장되어야 함.
 - 다섯째, 돌봄과 교육을 포괄하는 영유아교사 전문성의 균질성을 확보해야 함. 서울형 통합교사(가칭) 양성 체제를 일원화하고 지속적인 교사 교육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야 함.

2) 아동권익 관점의 유보통합 추진 실행 로드맵

- 아동권익 관점의 유보통합 추진 방안에 따른 실행 로드맵은 <유보통합 준비기→정비기→완성기>의 단계별로 진행되어야 함(고영미·서윤희·임수진·박수경, 2022). 각 단계별 세부방안은 다음과 같으며, 이를 그림으로 제시하면 <그림 1-1>과 같음.
- 유보통합 준비기
 - 교육부로의 선 부처 통합을 추진함. 이를 위해 교육과 돌봄, 복지를 포함한 확대된 교육부 조직 및 기능을 확대하고, 교육부로의 통합을 위한 법률 개정이 필요함. 돌봄과 다른 서비스 간 상호 협력적 관계 구축과 시·도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소통과 교류가 고려되어야 함.
 - 유보통합 추진단을 구성하고 운영함. 유아교육과 보육 관련 교수, 연구원, 행정가, 교원 등 다양한 관계 집단 전문가를 포함하여 영유아, 유보통합의 본질에 중심을 둔 의견 개진 및 조정이 필요하며 다양한 대상과 방식의 의견 수렴이 요구됨.
- 유보통합 정비기
 - 완전무상교육 기반 재정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유보통합 정책을 운영함. 특히, 유보통합 준비를 위한 특별회계 및 교사 지원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재정 마련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 다양한 대상과 방식의 의견 수렴 및 합의를 통해 구체적인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재정, 교사 양성 및 자격, 기관 유형 등 유보통합의 세부 방안에 따른 법률 개정이 고려되어야 함.
- 유보통합 완성기
 - 교육과 돌봄을 포괄하는 영유아교사 양성 및 자격 기준의 동질성을 확보함.

〈그림 1-1〉 유보통합 실행 로드맵



3) 유보통합 대응 서울시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영유아반 분리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방안

- 아동의 권익을 기반으로 만 0-5세 영유아의 출발선 평등과 유아교육 및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유아교육과 보육의 가치 및 성격을 규정하고, 서울시 보육교사를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함.
- 유아교육과 보육의 가치와 성격
 - 미래지향적 유치원과 어린이집 성격을 규정하고 이에 대한 합의가 필요
 - 윤리적 관점에서 교육과 보육을 포괄하는 개념 정의가 필요
 - 인간 발달의 연속성 차원에서 교육, 돌봄, 복지를 포괄하는 용어로의 재개념화와 재구조화가 필요
- 기관(시설) 유형
 - 다양성을 유지하며 단기적으로는 기존의 유치원, 어린이집의 현행 체제로 운영되나 중장기적으로 통합이 필요함. 지역의 구와 특수성을 반영하고, 영유아 수를 고려하

여 시설이 설치·운영되어야 함. 유보통합 이후 기관(시설) 유형은 다음과 같음.

구분	현행		⇒	방향
	법적 성격	사회복지시설		교육기관
유형	어린이집	유치원		영유아 교육보육기관(가칭)
이용연령	0-5세	3-5세		0-5세
설립유형	현행 유지	현행 유지		관할 부처 성격, 사회적 합의에 근거하여 재편

○ 기관(시설) 운영 형태

- 유보통합 시 기관(시설)의 운영은 영유아 입장에서 일상생활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운영시간 동안 인력 배치나 교육 및 보육과정 운영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지역과 기관, 학부모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운영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운영시간을 고려하여 인력배치 방안을 강구함. 교육 및 보육 과정을 운영하면서 한 학급을 책임지는 담임교사 외에 교육 및 보육과정을 지원하거나 방과후 과정(또는 연장 교육·보육 시간)을 지원하는 교사를 별도로 두어 운영하거나 배치함.
- 한 학급에 담임교사 2명을 배치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관련하여 제안해 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구분	현행		⇒	방향																		
	유형	어린이집		유치원	영유아 교육보육기관(가칭)																	
운영 형태	기본보육(7시간) 연장보육	아침 돌봄 교육과정(4-5시간) 방과후 과정 저녁 돌봄		1안) 반일반(4-5시간), 종일반(8-12시간) 2안) 기본 교육보육 시간(7시간), 연장 교육보육 시간 3안) 운영시간 재편																		
교육보육과정	표준보육과정(0-2세) 표준보육과정, 3-5세 2019 개정 누리과정	유치원 교육과정(2019 개정 누리과정)		0-5세 통합 교육과정(가칭)*																		
설립유형	현행 유지	현행 유지		관할 부처 성격, 사회적 합의에 근거하여 재편																		
교원 배치	현행 유지	현행 유지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만0세</th> <th>만1세</th> <th>만2세</th> <th>만3세</th> <th>만4세 이상</th> </tr> </thead> <tbody> <tr> <td>반일반(기본)</td> <td>3명</td> <td>5명</td> <td>7명</td> <td>15명</td> <td>20명</td> </tr> <tr> <td>종일반(연장)</td> <td>동일</td> <td>동일</td> <td>동일</td> <td>25**</td> <td>30**</td> </tr> </tbody> </table> <p>** 보조교사 추가 배치</p>	구분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이상	반일반(기본)	3명	5명	7명	15명	20명	종일반(연장)	동일	동일	동일	25**	30**
구분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이상																	
반일반(기본)	3명	5명	7명	15명	20명																	
종일반(연장)	동일	동일	동일	25**	30**																	

주: * 유초 연계, 연령 간 연계, 기관 간 연계 강화

○ 교사 자격·양성·처우 개선

- 장기적으로 교사자격을 단일화하다 것이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적 제고를 위한 방안이나 이견이 많고, 민감한 사항이므로 교사의 역할과 기능에 따라 교사자격 체계를 다양화 하는 방안이 제기됨.
- 특히, 교육공무원 신분인 공립유치원 교사의 위상과 처우 등에 관한 고려가 필요함.

구분	현행		⇒	방향
	유형	어린이집		유치원
명칭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영유아 통합교사(가칭)
대상연령	0-5세	3-5세		0-5세
최초 취득 자격	보육교사 3급 또는 2급	유치원 정교사 2급, 보육교사 2급		1안) 교사자격 단일화 2안) 교사자격 다양화
경력 인정	보육교사 경력만 인정	유치원, 보육교사 경력 모두 인정		상호경력 인정
자격 전환	-			1안) 학사학위 + 교사자격 2안) 영아발달 + 교직과목 (일정기간, 특정 시수)

3. 연구의 범위

가. 연구 내용

1) 서울시 보육교사 양성·자격 현황 실태 분석

- 자격증 소지 현황 및 자격급별 양성 현황
- 양성과정 교과목 및 과목별 내용 분석
- 보수교육 및 재교육 실시 현황 및 교육 내용 분석

2) 보육 현장의 통합 교사 양성 및 전환 관련 수요 예측

- 교사급별 유치원교사 및 보육교사 이수 교과목 차이
- 통합교사 전환 교육 수요
 - 통합교사에게 요구되는 역량: 선행연구 및 사례분석
 - 주요 국가의 유보통합 교사 교육 과정 분석
 - 보육교사에서 통합교사로의 전환자 규모 추계
- 0-5세 영유아 연령별 교사에게 요구되는 역량

3) 서울시 보육교사를 위한 통합교사 교육과정 개발

- 현직 보육교사의 서울형 통합교사를 위한 재교육 과정 개발
 - 현직교사의 서울형 통합교사를 위한 재교육 과정(안) 도출
 - 보육교사 자격급, 최종학력(전공여부) 등을 고려한 교육과정 설계

4) 통합기관 유형별 교사 교육 과정(안)

- 0-2세 영아 이용기관
- 3-5세 유아 이용기관

5) 영·유아반 분리 운영 대응 현행 어린이집 재편 방안

- 국공립·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의 통합 및 분리 방안

6) '교육+보육' 융합 서비스 체제 및 시설 모델 제안

- 이 상에서 제시한 국공립·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의 통합 및 분리 방안과 더불어 서울형 '교육+보육' 융합 서비스 체제 및 시설 모델을 혁신적으로 형성하는 방안 제안

나. 연구 범위

- 본 연구는 서울시 유아교육과 영유아 보육 영역에서 이뤄지는 유보통합으로 연구 범위를 한정함.
- 또한 본 연구는 현행 중앙정부(교육부) 차원의 유보통합 정책적 범위 내에서의 효과적, 효율적 접근 모색에 주안점을 두고자 함.

4. 주요 연구 실행계획

가. 현황 조사 및 분석

- 서울시 보육교사 양성·자격 현황 실태 분석
- 교육 현장의 통합교사 양성 및 전환 관련한 수요 예측

- 서울시 통합교사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기존 보육교사 양성교육과정과 유치원교사 양성교육과정에 대한 심층 분석
- 통합기관 유형별 교사 교육과정(안) 개발을 위한 교육 내용 고찰과 창의적인 구성 모색
- 영·유아반 분리 운영에 대응한 현행 어린이집 재편 방안 제시를 위한 국내외 선형 연구 및 사례 분석
- 서울형 ‘교육+보육’ 융합 서비스 체제 및 시설 모델 제안을 위한 해외 선진 사례 분석

나. 연구방법 및 추진방법

1) 연구방법

-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보육교사 양성·자격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유보통합의 대상자가 될 수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선정하여 질적 조사방법인 초점집단인터뷰를 실시할 계획이며, 양적연구방법을 활용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교차분석을 통해 빈도, 비율, 평균 및 변수 간 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 향후 수집된 자료들을 주제 분석을 통해 수요예측 및 서울형 통합교사 전환 교육과정 개발(안) 도출에 활용할 예정이며, 영·유아반 분리 운영 대응을 위한 현행 어린이집 재편 방안과 서울형 ‘교육+보육’ 융합 서비스 체제 및 시설 모델을 제시하고자 함.

2) 추진방법

○ 진행순서

- 연구설계 단계 : 연구기획, 연구범위 확정
- 연구진행 단계 : 문헌자료 및 온라인 자료 수집 및 검토
초점집단인터뷰 및 실태조사 등
- 자료분석 단계 :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고 평가하여 결과 도출
- 대안제시 단계 :
 - 보육 현장의 통합 교사 양성 및 전환 관련 수요 예측
 - 서울시 보육교사를 위한 서울형 통합교사 교육과정 개발(안) 제안
 - 영·유아반 분리 운영 대응 현행 어린이집 재편 방안 제안
 - ‘교육+보육’ 융합 서비스 체제 및 시설 모델 제안

○ 수행방법

- 선행연구 검토 및 각종 자료 수집 및 검토
- 초점집단인터뷰 및 질적자료분석
- 실태조사 및 양적자료분석
- 대안 제시 및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

다. 추진일정

항 목	7월		8월		9월		10월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 연구설계		■						
○ 문헌고찰			■	■				
국내 자료수집 및 분석			■	■				
국외 자료수집 및 분석			■	■				
○ 초점집단인터뷰			■	■				
조사 설계			■					
자료 수집과 결과 분석				■				
○ 실태조사				■	■	■	■	■
조사 설계				■	■			
자료 수집					■	■		
조사 결과 분석						■	■	■
○ 정책 대안 제시							■	■
통합교사 교육과정 개발							■	■
통합기관 유형별 교사 교육과정 (안) 개발							■	■
어린이집 재편 방안 제시							■	■
○ 연구진 회의		■	■		■		■	■
○ 보고서 집필			■	■	■	■	■	■
○ 보고회(착수/중간/최종보고)			■		■			■
○ 최종보고서 수정 및 제출								■

II. 전문가 대상 초점집단인터뷰 분석 결과

1. 연구방법

- 본 연구에서는 유보통합 대응 서울시 보육의 질 향상과 영유아반 분리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관한 연구의 일환으로 보육 현장의 전문가와 학계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초점집단인터뷰를 실시하였음.
- 이 방법은 특정 집단을 대표하는 목적의식이 분명한 인터뷰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심도 깊은 인터뷰를 실시하는 것이며, 본 연구의 주제인 유보통합 대응 서울시 보육의 질 향상과 영유아반 분리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관련하여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 이를 위하여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질문지를 초점집단인터뷰 연구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제작하여 활용하였음.

〈표 2-1〉 연구질문

구분	질문 내용
보육 현장의 통합 교사 양성 및 전환 관련 수요 예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교사에게 요구되는 기본역량 및 핵심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유보통합을 위해 서울시에서 제공해야 하는 현직 보육교사/유치원교사 재교육은 어떻게(주관, 방법, 통합교사 자격증 전환기준 등)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시 보육교사를 위한 통합교사 교육과정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연구는 통합교사 중에서도 서울형 통합교사를 위한 재교육 과정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서울형” 통합교사 재교육 과정 개발에 있어 특별히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통합기관 유형별 교사 교육 과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보통합을 위해 서울시에서 제공해야 하는 현직 보육교사/유치원교사 재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통합교사로 전환하게 되는 현재의 보육교사의 질(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교육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통합교사로 전환하게 되는 현재의 유치원교사의 질(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교육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유아반 분리 운영 대응 현행 어린이집 재편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의 통합 및 분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서울시 어린이집/유치원 두기관의 통합 시 운영시간과 운영일수, 기관의 적정 규모, 설립인가 기준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서울시 유치원과 어린이집 기존 기관의 전환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p>‘교육+보육’ 융합서비스 체재 및 시설 모델 제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형 ‘교육+보육’ 융합 서비스 체제 및 시설 모델 구축을 위해 어떠한 것들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p>기타 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보통합이 시행되는 경우, 대상자인 아동과 부모에게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유보통합이 시행되는 경우, 시설 운영자와 교사를 포함한 현장에는 어떠한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운영 초기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으로는 어떠한 점들을 예상하십니까? • 마지막으로 본 연구와 관련하여 해 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유보통합 추진에 있어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어떤 의견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 초점집단인터뷰는 질적 연구에서 자주 활용되는 자료수집 방법임. 연구참여자들 간의 대화와 토론을 이끌어내어 새로운 주제를 탐색하는 연구에 적절하며 분석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음(Sheila, 1998).
- 초점집단인터뷰를 설계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집단 동질성(group homogeneity)임. 이는 유사한 특징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집단의 경우 주어진 현상 및 문제에 대해 보다 진솔하게 의견을 나눌 수 있어 집단 역동(group dynamics)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임(Morgan, 1998; Kellogg et al, 2007).
- 본 연구는 ‘약자’로 분류될 수 있는 영아와 유아를 위한 보육의 질 향상이라는 중요한 정책과제와 유보통합 대응이라는 새로운 주제를 포함하고 있고, 영유아반 분리운영의 효율성 제고 등 현장 및 학계에서 이견들이 존재할 수 있는 이슈에 대한 방향성을 탐색한다는 점에서 초점집단인터뷰가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음. 또한 양적 설문조사를 앞두고 문항 설계 단계에서 보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로서의 역할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였음.
- 현장 전문가 연구참여자는 연구진 및 자문위원단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6명을 선정하였으며, 학계 전문가 연구참여자는 연구진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3명을 선정하였음.
- 인터뷰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사전에 인터뷰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안내하였으며, 선행연구를 토대로 작성된 개방형의 반구조화된 질문지 역시 사전에 전달되었음.

- 초점집단인터뷰는 2023년 9월 4일(월)에 현장 전문가와 학계 전문가를 구분하여 온라인 zoom을 활용한 방식으로 진행되었음. 인터뷰는 집단별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사전에 배포된 반구조화 된 질문지를 바탕으로 진행되었음. 인터뷰 시작 전 연구참여 및 인터뷰 녹음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으며 인터뷰는 책임연구자가 진행하고 연구진들이 질의응답이 필요한 부분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음.
- 인터뷰를 마친 후에 전사한 녹취록을 연구진이 읽어나감으로써 오류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였으며, 녹취록과 인터뷰 당일 참여자들의 반응과 메모가 포함된 자료를 바탕으로 자료를 분석하였음. 자료 분석은 각 질문에 따른 참여자들의 답변을 중심 주제별로 묶어 나가고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해 나갔음.

3. 연구참여자

-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다음 표와 같음.

〈표 2-2〉 현장 전문가 연구참여자 현황

구분	성별	연령	학력	전공	직위	총 경력
A1	여	만55세	박사	유아교육	원장	30년 1개월
A2	여	만47세	석사	유아교육	원장	20년 7개월
A3	여	만63세	석사	유아교육	원장	39년 11개월
A4	여	만58세	박사	아동청소년	원장	20년
A5	여	만52세	박사	유아심리	원장	28년
A6	여	만55세	박사	사회복지	00협회장	27년

〈표 2-3〉 학계 전문가 연구참여자 현황

구분	성별	연령	학력	전공	직위	총 경력
B1	여	만47세	박사	유아교육	교수	24년 7개월
B2	남	만36세	박사	유아교육	공무원	11년
B3	여	만53세	박사	아동복지	부교수	30년 6개월

4. 전문가 대상 초점집단인터뷰 분석 결과 (범주화 결과)

가. 현장 실무자

- 영유아보육 및 교육 현장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초점집단인터뷰 분석 결과, 46개의 개념, 14개의 하위범주, 5개의 상위범주가 도출되었음.

〈표 2-4〉 현장 실무자 초점집단인터뷰 범주화 결과

상위범주	하위범주	FGI 내용 요약	
보육 현장의 통합 교사 양성 및 전환 관련 수요 예측	통합교사의 핵심역량	보육과 교육에 대한 이해, 유연하고 개방적인 태도, 인성, 역량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	
		연령별 이해, 실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능력과 태도가 요구됨	
	유보통합에 대한 인식	민간어린이집 입장에서는 유보통합에 대한 관심이 적음	
		국공립유치원 입장에서는 유보통합에 반대하는 의견들이 많음	
		유보통합 기관 선택 시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이미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경우 유보통합을 위한 기본적인 것은 갖추어져 있으므로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상황임	
	유보통합 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	영유아 통합교사에 대한 명칭을 영유아 교사로 제안함	
		유보통합에 따른 담임교사 배정 시 갈등 유발 요인이 내재해 있음	
		유보통합에 따라 기관의 시설 보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서울시 보육교사를 위한 통합교사 교육과정 개발	서울시 통합교사 모델 시스템 구축	유보통합에 따라 기관의 급식 준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기관 모델 시스템을 먼저 구축한 후 교사 전환교육을 하여야 함
			서울시 유보통합에 따른 교사 복지 향상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서울시 교사의 다양성(교사 양성 및 배출 과정의 다양성)을 인정해줄 필요가 있음			
영유아의 안정된 교육과 보육 환경이 유지되기 위한 교사 처우 및 보조교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다양성 및 전문성을 존중받을 수 있는 모두가 행복한 유보통합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상위범주	하위범주	FGI 내용 요약
통합기관 유형별 교사 교육 과정(안)	재교육 주관기관 유형 과 기간 및 선택권	재교육 주관은 서울시교육청이 되어야 하며, 보육공백 없이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전환교육 기관은 대학의 관련 학과와 연계해서 이루질 필요가 있음
		어린이집 교사 자격 전환은 유아교육과 3년제 혹은 4년제 대학에서 야간에 대면과 비대면으로 융통성 있게 2년 혹은 3년 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겠음
		서울시교육청이 전환교육의 주체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재교육 선택권을 교사에게 부여하고, 교사 자격 전환 시 교사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이 필요함
		교사자격 전환 시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교사들로부터의 의견수렴이 필요함
	재교육비용 부담	교육비용 부담은 국가에서 지원
	재교육 내용	교육과 돌봄에 대한 기본 교육 및 패러다임을 이해하는 것이 요구됨
		보육교사의 경우 교직이수가 필요함
		교직과목에 대한 축소가 필요함
유치원 교사의 경우 영아발달 및 교육과정, 어린이집 운영 시스템, 상호작용, 교육과 돌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		
영유아발달에 대한 이해, 보육과정과 교육과정이 연계된 내용으로 구성하는 것을 제안함		
교사의 질적 향상에 대한 교육적 접근 내용으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함		
실습 내용	유치원 교사의 경우 영아실습이 필요함	
전환교육 형태와 인정범위	전환 교육 시 교사 경력 인정이 필요하고, 교사 자격 전환 시 경력 인정이 필요함	
영·유아반 분리 운영 대응 현행 어린이집 재편 방안	보육과 교육의 차이	유치원 입장에서는 어린이집과 차이가 있어서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은 잘 모름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의 개별적인 특성(차별성) 없음
	돌봄 중심 영아 - 교육 중심 유아의	돌봄 중심의 영아전담 어린이집을 유지하는 것이 요구됨

상위범주	하위범주	FGI 내용 요약
	분리 운영	돌봄 중심 영아와 교육 중심 유아의 분리운영은 필요함
	영유아 연령별 운영 형태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현재 연령별로 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연령별 구간의 운영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함
‘교육 + 보육’ 융합서비스 체계 및 시설 모델 제안	통합기관 시스템 재구조화	거점 통합학교 체제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유보통합 모델의 경우, 연령별 프로그램 구성이 중요함
		영유아 중심(아동 중심) 유보통합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시장원리에 따라 수요자 선택에 따라 기관이 정리될 필요가 있음
	통합기관 현황 시스템 유지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통합교육기관 모델은 유지할 필요가 있음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통합교육기관 모델의 효율적인 운영이 요구됨
		현재 어린이집은 연령 통합으로 운영되고 있음
		기관 설립 유형을 인정하는 것이 요구됨
		영아전담 어린이집 모델은 존속시킬 필요가 있음
		현재 유치원·어린이집 체제를 유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가 필요함

1) 보육현장의 통합교사 양성 및 전환관련 수요 예측

가) 통합교사의 핵심역량

- 통합교사의 핵심역량으로는 보육과 교육에 대한 이해, 유연하고 개방적인 태도, 인성, 역량관리, 연령별 이해와 실제 교육프로그램 운영능력과 태도가 제시되었음.
 - 유보통합의 기본적 이해로서 보육과 교육에 대한 이해 즉 연령별 이해와 연령에 따른 실제 교육 프로그램 운영능력과 태도가 중요함.
 - 통합교사로서 유연하고 개방적인 태도, 인성, 역량관리능력도 통합교사의 핵심역량으로 제시됨.

“영유아 교사로서 유연하고 열려 있는 태도가 너무 중요한 거 같고, 인성과 태도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되게 유연하고 열려 있는 태도로써 교육도 이제 우리나라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건 내려놓고 어떤 건 내가 부족하다고 인정을 하면서 역량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에서 같이 머리 싸매고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B1)

“각 연령마다 특징이 있기 때문에 각 연령을 지도할 수 있는 전문 지식이 필요할 것 같고, 실질적인 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가 제일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B3)

나) 유보통합에 대한 인식

① 유보통합에 대한 인식 차이 존재

○ 현장 실무자의 경우, 유보통합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존재함.

- 민간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은 유보통합에 관심이 적고 반대하는 입장을 취함.
- 민간 어린이집의 경우, 저출산 시대에 원아모집의 어려움을 겪는 현 시점에서 유보통합에 관심을 갖기가 어렵다는 의견임.

“유보통합이라는 거에 대해서 처음부터 그 말 나왔을 그 옛날부터 저는 반대 입장에 있었고, 지금 현장에서도 잘 몰라요. 너무 쉬쉬하고...”(B6)

“사실 지금 이 시점에서 민간 어린이집이라서 저희 교사들은 유보통합이고 뭐고 관심이 없어요. 지금 아이들, 어차피 저희 주변에 다 국공립도 충원이 안 됐고, 저희 어린이집은 더더군다나 더 안 됐고....”(B4)

② 유보통합기관 선택의 신중성 필요

○ 부모의 입장에서 유보통합이 되면 기관 선택 시 보다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음.

“단설 학교에 있는 단설 유치원, 병설 유치원은 아이들이 5년 플러스 6년, 11년을 다니는 거예요, 그 같은 건물에. 11년을 그 학교, 초등학교 안에 11년을 지내야 된다는 것도 있고 또 엄마들이 이제 한 번 들어가면 5년을 다녀야 되기 때문에, 사립 유치원이나 뭐 유보통합 되는 기관들은. 그러다 보면 그 유치원을, 유보통합된 유치원을 통합 기관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엄마들도 신중을 기하실 거 같아요.”(B3)

③ 유보통합의 기본적인 준비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 필요

- 유보통합에 대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기본적인 준비는 갖추어져 있으므로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기본 보육을 7시 반에서 4시까지, 그리고 교사는 4시부터 5시, 6시까지는 연구 시간을 갖고 그 시간 동안은 이제 연장 보육 교사들을 채용을 해서 부분적으로 이걸 보완하고 있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차별화가 전혀, 점점점 없어지는 과정에서 유보통합이 대두됐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고요.”(B2)

④ 영유아 통합교사 명칭 제안

- 유보통합 시 교사의 명칭을 영유아 통합교사보다는 영유아 교사로 제안함.

“영유아 통합교사라고 명명 짓기 때문에 좀 더 별도의 이 영유아 교사로 이름을 합치는 것이 어떻까라는 제안을 우선 드리고요.”(B2)

다) 유보통합 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

① 유보통합 시 연령별 담임교사 배정 시 어려움 존재

- 원장으로서 연령별 담임교사 배정 시 갈등이 존재 할 수 있어서 갈등을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존재함.

“서로 담임을 그 회피하는 그 연령대가 있을 텐데,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게 가장 이제 관리자 입장에서는 가장 큰 문제로 다가오더라고요.”(B6)

② 기관의 시설 보수 및 급식 준비의 어려움 존재

- 유보통합으로 기관의 많은 시설보수가 필요함.

“시설적인 면에서 엄청나게 많이 시설을 보수를 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B6)

- 유보통합 시 연령별 차이(영아와 유아)로 기관의 급식 준비에 있어서 어려움이 존

재할 수 있음.

“분명히 0~5세까지 하면, 0~2세, 0에서 0세, 1세, 2세 먹는 것을 5세가 똑같이 먹지는 못할 거란 말이에요. 그걸 어떡할지... 영양사 혼자 그걸 다 해낼 수 있을지... 안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B6)

2) 서울시 보육교사를 위한 통합교사 교육과정 개발

가) 서울시 통합교사 모델 시스템 구축

- 서울시 통합교사 기관모델 시스템 기반 선 구축, 후 교사 재교육 필요함.

“서울형 통합교사들이 일하게 되면 영유아 어떤 학교 모델 시스템이 무엇을 추구하는지가 먼저 잡혀야 될 거 같아요. 그래야 어떻게 일할지를 교사들이 생각을 하죠.”(B1)

나) 서울시 유보통합에 따른 교사 복지 향상프로그램 개발 및 교사 처우, 보조교사 시스템 구축 필요함.

“만약에 유보통합을 한다면 좀 더 교사의 복지를 더 좀 좋아지는 쪽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B6)

“수업 시간이 네 시간, 다섯 시간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교사 처우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저는 교사들의 입장을 들여다봐줘야 현실적으로 영유아의 안정된 교육과 보육 환경이 유지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보조교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교사 시스템도 필요하다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B5)

다) 서울시 유보통합 시 교사의 다양성 인정 및 전문성을 존중받을 수 있는 모두 행복한 유보통합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다만 중요한 건 교사들에 대해서 존중의 마음을 그다음에 교사들에 대해서 현 교육 자격에 대해서 나라에서 지켜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 교사의 질적으로 떨어지는 부분이 절대 아님을 교사들 스스로도 그 자긍심을 갖고 그 자긍심으로 아이들을 영유아, 영아 애들을 돌볼 수 있고, 또 본인 스스로 나도 유치원 자격이 있어, 그래서 나는 유아를 볼 거야, 해서 그 교사로서의 그 다양성을 인정해줄 수 있는, 국가적으로 그런 지원 체제가 저는 필요하다고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B5)

“서로 행복하고 각자의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고, 각자의 전문성을 또 보호받을 수

있고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유보통합이 되었으면 합니다.”(B5)

3) 통합기관 유형별 교사교육과정(안)

가) 재교육 주관기관 유형과 운영방법 및 선택권

① 재교육 주관기관 유형과 운영방법

- 재교육 주관기관은 서울시 교육청이어야 하며, 교육은 대학의 관련 학과(유아교육과 또는 아동학과)에서 진행하고, 기간은 6개월에서 1년 또는 2년 3년 과정으로 융통성 있게 운영되어야 됨.

“주관은 당연히 서울시교육청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6개월에서 1년 정도 충분한 시간을 배정해서 보육의 공백 없이 재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략) 교육의 주관은 교육부와 보육 관련 부서에서 함께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B1)

“서울시교육청에서 이와 관련된 재교육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B2)

“서울에 4년제 정규 대학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관련 학과와 연계해서 재교육 하면 다른 시와 차별화되는 역량강화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B1)

“어린이집 교사들도 유아교육과가 있는 3년제 혹은 4년제 대학이 많이 있으니 거기서 이렇게 야간을 이용해서 교육반을 모집을 하는 게 맞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방법은 야간 대학, 대면 수업이 필요하면 대면 수업을 하셔야 되고 요즘은 비대면 줌 교육도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유아교육은 비대면으로만 할 수 있는 수업이 아니다 보니 줌과 대면 수업을 좀 적절하게 운영을 해서... 2년 코스 아니면 3년 코스가 개설돼야 될 것 같아요.”(B3)

② 재교육에 대한 교사 의견 수렴 및 선택권 보장

- 교사 자격 전환 시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재교육에 대한 교사들로부터의 의견 수렴이 필요함.

“교사들이 안정화된 유보통합에 있어서 너무 현장이 혼란스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교사들이 혼란스러우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거는 바로 영유아들이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교사들이 그 혼란을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 교사 연수나 그런 교

직 과목 이수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사들의 의견을 좀 수렴하는 방향을 좀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B5)

“교사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B5)

- 교사에게 재교육에 대한 선택권을 주는 것이 필요함.

“교사에게 재교육에 대한 선택권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B1)

“교사 자격 같은 경우는 0~5세 통합교사 자격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안에서 교사들이 선택을 좀 할 수 있도록 좀 열어놔요면 좋겠어요.”(B5)

③ 재교육 비용 부담

- 유보통합은 국정과제이므로 재교육 비용 부담은 국가로부터의 전액 지원을 요청함.

“국정과제로 채택되어 이루어지는 국책 사업이므로 교육비용은 당연히 나라에서 지원하는 방향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B1)

④ 재교육 내용

- 재교육 내용은 먼저 교육과 돌봄에 대한 기본 교육 및 패러다임 이해가 필요하며, 영유아발달에 대한 이해 및 보육과정과 교육과정 연계된 내용 구성이 필요함.

“선생님들이 사실은 저는 영유아 모두 다 돌봄과 아이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 같은 저출산에, 요즘 같은 맞벌이에 돌봄이 교육에서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초등도 돌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돌봄을 지금 어린이집에서 많이 하고 있다고 그렇게 유치원 쪽에서 또 얘기하실 텐데, 저는 돌봄과 아이들의 교육이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B1)

“그다음에 저는 영유아 통합 교사 자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영아 교사들도 그 발달에 있어서 이 발달의 전 생애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0세부터 5세잖아요. 그러면 유아발달에 대해서 모르면 알아야 되고 영아의 발달성에 대해서도 알아야지 그게 자연 연계로 간다고 생각해요. 특히 5세 같은 경우는 초등 교육 연계 과정이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하겠죠. 다만 0세에서 영아 발달, 0~2세까지 그 발달에 대해서 그 연계성을 가지고 누리 아이들을 가리키는 그 연계성에 대해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영유아 통합교사의 과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B5)

- 보육교사는 교직이수가 필요하지만 교직과목 축소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음.

“아이들을 위한 유보통합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유치원 교사는 영아 실습 그다음에 또 보육교사들은 교직 이수, 이런 것들이 당연히 돼야 될 거 같고...”(B1)

“교직 과목에서 불필요한 교직 과목 이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체적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수정을 할 필요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또 여러 가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교직 과목은 좀 축소돼야 된다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B5)

“현장에서 지금 교직 과목에 대응하는 그런 비슷한 그런 과목들을 저희들은 거의 다 이수를 했거든요.”(B5)

- 유치원교사의 경우 영아발달 및 교육과정, 어린이집 운영시스템, 상호작용, 교육과 돌봄에 대한 내용 구성이 필요함.

“유치원 같은 경우는 2급 정교사 자격증이 있으면 지금 선생님들이 일하지않아요. 그런데 영아 발달 및 교육 과정에 대한 이수가 필요하고 또 반대로 보육교사 같은 경우는 유치원 2급 정교사에 부족한 학점 이수 같은 것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또 그 상대적으로 영아 교육에 대한 이해가 많이 없으세요. 다시 선생님들을 일일이 실습하면서 알려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 운영 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영아 발달 특성에 따른 보육과 교육의 실재에 대해서, 뭐 교실 운영, 상호 작용, 그리고 교육과 돌봄의 중요성, 좋은 돌봄이 뭐 뇌 발달과 정서 발달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서로 얘기를 하면서 합을 맞춰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B1)

- 최종적으로 교사의 질적 향상에 대한 교육적 접근 내용 구성이 필요함.

“현장에 있는 교사들은 너무 많은 교육에 지금 포화 상태거든요. 어린이집만 해도 어마무시한 교육을 받고 있고. 그런데, 그런데 이 안에서 질적인 교육적인 접근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좀 제안드리고 싶고요.”(B5)

⑤ 실습 내용

- 유치원 교사의 경우 영아반 실습이 필요함.

“아이들을 위한 유보통합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유치원 교사는 영아 실습 그다음

에 또 보육교사들은 교직 이수, 이런 것들이 당연히 돼야 될 거 같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사실 이제 영아반 같은 경우는 뭐 기저귀 같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뭔가 아이들 배변 훈련이라든지 좀 영아에 맞는 어떤 발달 이해나 이런 것들을 다시 가르쳐야 되는 문제가 있더라고요.”(B1)

⑥ 전환교육 인정 범위

- 자격 전환을 위한 재교육 시 교사의 경력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함 : 학력도 경력으로 인정

“저는 이 안에서 제안을 드리기는 경력을 인정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희는 교육부에 이제 통합이 돼서 갈 때 교직 과목을 이수해야 교원 자격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경력에 따라서 차등을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려요”(B5)

“어린이집, 유치원 뭐 정교사나 보육교사, 교사의 그 이수해야 되는 과목의 차이는 없다, 저는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경력에 대한 인정이 되게 중요하고...”(B2)

“결국 경력에, 학력도 경력으로 넣고 경력도 경력으로 반영해서 영유아교사의 경력은 경력 인정으로 해서 합의를 보는 것이 가장 무리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B2)

4) 영·유아반 분리 운영 대응 현행 어린이집 재편 방안

가) 보육과 교육의 차이

- 보육(어린이집)과 교육(유치원)의 차이가 있다는 의견과 없다는 의견이 있음

“저는 유치원도 경험을 했고 또 어린이집도 경험을 했어요. 또 어린이집도 뭐 사실 직장 어린이집밖에 경험 안 했지만 어쨌든 그 두 가지 차이에 대해서 사실 경험.. 그러니까 어린이집 근무하면서 유치원과 뭐가 다른지 확 느꼈고....”(B1)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이제는 양분화된 어떤 개별적인 특성이 없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B2)

나) 돌봄 중심 영아 - 교육 중심 유아의 분리 운영

- 돌봄 중심의 영아전담 어린이집은 교육 중심 유아와 차이가 있어서 그대로 유지가

필요함.

“영아 전담 어린이집은 존속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 그러니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좀 주장하고 싶어요. 영아 전담만이라도 그냥 살려뒀으면 좋겠어요.”(B6)
“67% 이상이 영아를 지금 보육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기관별로 각자 갖고 있는 그 모델을 그대로 가져가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B5)

○ 영·유아의 분리운영은 필요함

“자연스럽게 영아하고 유아는 분리돼서 운영이 되는 시스템이 저는 맞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조건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린... 가정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하는 어린이집은 통합으로, 전체 연령을 다, 지금처럼. 그리고 유치원에서도 분리해서 6~7세만 보고 싶다고 한다면 그렇게.”(B2)

다) 영유아 연령별 운영 형태

○ 연령별 통합으로 운영하거나 연령별 구간의 운영형태를 선택해서 운영하는 형태가 필요함.

“직장 어린이집이고 정말 8시부터 6시까지 아이들이 꽉 채워 있거든요. 이 시간을 늘어놓고 이제 기존 인력과 어떻게 우리에게 맞는 것들을 이렇게 재배치해가면서 해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많이 포함이 된다면 시간이라든지 뭐 운영 체계, 이런 것들이 그래도 가안이 나와야지 조금 더 얘기를 좀 잘할 수 있을 거 같아요.”(B1)

“사립 유치원 입장에서는 3~5세, 0~5세, 뭐 0~2세? 뭐 약간 좀 그런 구간을 정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B5)

5) ‘교육+보육’ 융합서비스 체계 및 시설 모델 제안

가) 통합기관 시스템 재구조화

- 교육+보육 융합 서비스 체제로서 통합기관 시스템의 재구조화가 필요함.
- 거점 통합학교 체계 운영 제안

“정말 제대로 된 교육을 통해서 전문성 있는 현장 교사가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려면 뭐 보수라든지 또 아까 보조교사라든지 이런 지원을 받아서 현장에서 잘 일할 수 있는 시스템도 정말 중요하고 또 유치원 장학사나 아니면 뭐 어린이집 같은 경우 요즘 컨설팅 많이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뭐 거점 어린이집이든 뭐 거점 통합 그런 학교 체제가 된다면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한 3~4개를 같이 좀 묶어서 관리하고 좋은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사례들을 서로 공유한다든지 뭐 이런 노력들도 필요할 거 같고요.”(B1)

○ 유보통합 모델은 연령별 프로그램 구성으로 재구조화

“사실 거의 종일반 애들이 거의 90%예요, 반일반 애들. 그러면 이제 저희가 프로그램을 반일반만 이제 짜다가 지금은 여덟 시간 프로그램을 짜야 된다는 거죠. 3, 4, 5세, 각 연령의 프로그램 짜기도 지금 버겁고, 늘 고민하면서 애들이 정말 놀이 중심으로 잘하고 있는지, 재미있는지, 지루하지 않는지, 다양한 걸 이렇게 평가하면서 운영하고 있는데, 0~5세까지 프로그램을 짜면 다 전일제를 짜야 되는데...”(B3)

○ 영유아중심(아동중심) 유보통합 시스템 구축

“우리 아이들을 가리키는 부분에 있어서 첫 출발선을 같이하고 재정적인 지원도 동등하게 해서 우리가 그 헤드 스타트처럼 무엇이든 간에 대한민국의 아이들은 모두가 함께 동일한 조건에서 키웠으면 좋겠다는 그런 국민의 바람으로 유보통합이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유보통합의 시작은 어떤 집단의 이기성이라든지 또는 그 본인들의 직무에 대한 어떤 그 유리함을 좀 배제하고 아이들의 입장에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요.”(B2)

○ 시장원리에 따른 수요자 선택으로 통합기관의 재구조화

“그것보다는 서울시가 지금 유보통합 전에 준비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재검토 부분, 그다음에 민가정과 관련돼서도 운영이 잘 되지 않는 기관에 대한 어떤 걱정하는 그 운영 기준점을 알리고 이 부분이 좀 정리가 되어야지 않을까, 행정적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살아남은 그 가정 어린이집과 민간 어린이집, 그리고 살아남은 국공립 어린이집들끼리 수요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어떤 거점형으로 운영되는 어린이집이 좀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시설적인 측면의 행정 절차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과정 안에서 영아 전담 어린이집은 그대로 유지해도 무리는 없지 않겠다. 단, 이제 명칭 자체가 유아하고 영아가 통합되는 영유아 통합 기관의 어떤 제3의 명칭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B2)

나) 통합기관 현행 시스템 유지

○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통합교육기관을 모델로 유지되어야 함.

“돌봄과 교육과 복지라는 것을 이제 별개의 영역으로 파트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던 시대는 지났고 돌봄과 교육과 복지는 결국은 인간 발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 있다...지금 현장에서 영유아반은 분리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그 거점과 관련돼서 이 표본화된 보육과 교육의 통합적인 모델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이미 운영하고 있는 데에서 모델을 찾는 것이 좋겠다.”(B2)

“어린이집에서 그 0세부터 7세, 취학 전까지의 100명 이상 시설 또는 80명 이상 시설의 어린이집은 이미 누리과정까지를 반영해서 유치원 교육과정과 0세 교육과정을 다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는 가장 표본적인 샘플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B2)

“전체 선생님들은 0세부터 취학 전 아이들까지를 다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선생님들로 채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해가 지나면 선생님들이 월반 요청 상담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적합한 선생님들을 배정을 해서 이렇게 뭐 두 담임, 쓰리 담임, 이렇게 반 정원 대비 교사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B2)

○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통합교육기관 모델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사실은 기존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고민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지금 현재 우리가 이 그 영유아반 분리 운영에 대한 효율성을 고민해야 되는가 하는 건데요.” (B2)

“자연스럽게 영아하고 유아는 분리돼서 운영이 되는 시스템이 저는 맞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조건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린... 가정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하는 어린이집은 통합으로, 전체 연령을 다, 지금처럼. 그리고 유치원에서도 분리해서 6~7세만 보고 싶다고 한다면 그렇게...”(B2)

- 현재 어린이집은 연령 통합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통합교육기관 모델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

“영유아 교사 그다음에 아이들 포함한 여러 가족들이 모두 큰 기대를 가질 거예요. 그런데 앞서 우리가 막 말했듯이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려면 영유아반의 연계성이 라든지 다양한 협력 사례, 이런 것들에서 자녀의 즐거운 일상과 성장이 느껴져야지 부모님들은 만족하실 거거든요? 그럼 좋은 변화라 느끼고 협력적 자세를 또 가지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서울형 보육, 교육, 그런 융합 서비스 체제 자체가 그 영유아들의 삶의 현실, 뭐 저출산 시대, 맞벌이, 가족 지원, 이런 것들을 다 읽어내서 모델 구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려면 사실 어린이집은 사실 이거를 많이 지금 반영하고 있거든요.”(B1)

- 기관 설립 유형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함.

“사립 유치원 입장에서는 3~5세, 0~5세, 뭐 0~2세? 뭐 약간 좀 그런 구간을 정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B5)

- 영아전담 어린이집 모델을 존속시키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67% 이상이 영아를 지금 보육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기관별로 각자 갖고 있는 그 모델을 그대로 가져가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B5)

- 현재 유치원 · 어린이집 체제 유지에 대한 희망을 드러냄.

“ ‘지금 현재 유지하고 있는 학교 체제로 그대로 가고 싶다.’예요.”(B5)

나. 학계 전문가

- 영유아보육 및 교육 학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초점집단인터뷰 분석 결과, 22개의 개념, 11개의 하위범주, 4개의 상위범주가 도출되었음.

〈표2-5〉 학계 전문가 초점집단인터뷰 범주화 결과

상위범주	하위범주	FGI 내용 요약	
보육 현장의 통합 교사 양성 및 전환 관련 수요 예측	유보통합에 대한 인식	영유아반의 교사를 분리 배출 또는 통합교사 배출에 대한 고민	
	유보통합 진행 상황	유보통합 관련 예산 교육청 이관 확정	
	유보통합 준비 과정		유보통합을 위한 회계시스템 통합 필요
			유보통합 시 원장 자격에 관한 논의 필요
			전환교육 강사 인력풀 준비 필요: 기존의 누리과정 및 표준보육과정 교수 인력풀 활용
	전환교육과정 실행 및 완료를 위한 기간은 약 12-13년이 걸림		
서울시 보육교사를 위한 통합교사 교육과정 개발	서울시 통합교사 모델 시스템 구축	유보통합에 대한 국가 기초를 따르되 서울시만의 특화된 유보통합 체제 구축	
	서울시 통합교사 특화프로그램 개발	서울시 통합교사의 특화프로그램 개발 : 디지털 역량, 회복탄력성 생태 관련 교육 내용 추가	
통합기관 유형별 교사 교육 과정(안)	재교육 주관기관 유형과 운영방법	재교육 주관기관은 대학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교직 관련 교수 재직 필수	
		교육과정 운영은 대면교육이 필수이며, 평일 주간이나 야간, 필요시 주말교육 운영	
		전환교육과정 운영 기관 일원화 필요	
		재교육 기간은 심사숙고하여 결정될 필요가 있음	
	전환교육 시 교육과정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적절한 유예기간이 필요		
	재교육비용 부담	교육비는 교사 자비부담	
	재교육 내용	유치원 교사 자격증만 있으면 영아 관련 교육 추가 이수, 보육교사 자격증만 있으면 교직과목(교육학) 및 교육과정 문해력 관련 과목 필수 이수	
보육교사 자격증만 있을 경우, 교직 관련 교과목 이수 필요			
실습 내용	교육에서 실습 비중을 높여야 됨		

상위범주	하위범주	FGI 내용 요약
	전환교육 강사의 질	전환교육과정 강사진은 현장과 이론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
		전환 교육과정의 현장경력이 있는 강사진 구성이 중요
		전환교육과정 강사진은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인력풀 활용
‘교육+보육’ 융합서비스 체제 및 시설 모델 제안	현행 체제를 적용한 통합기관 시스템 재구조화	4가지 유형의 융합서비스 체제 및 시설 모델 제안(국공립영유아학 교, 공영형 영유아학교, 사립영유아학교, 소규모 영유아학교)

1) 보육현장의 통합교사 양성 및 전환관련 수요 예측

가) 유보통합에 대한 인식

○ 영유아반의 교사를 분리 배출 또는 통합교사 배출에 대한 고민이 있음.

“영유아반의 교사를 따로 배출하는 게 과연 가능하고 적절할까에 대한 고민은 계속 조금 드는 것 같아요. ‘통합을 시켰는데 다시 이원화를 하는 걸까’라는 부분이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조금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그냥 전반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려 봤습니다.”(A2)

나) 유보통합 진행 상황

○ 유보통합 관련 예산은 교육청으로의 이관이 확정됨.

“예산이 나가는 것들이 지역 교육청으로 이관되는 것까지 이제 발표했고...”(A1)

다) 유보통합 준비과정

① 유보통합을 위한 회계 시스템 통합 필요

- 유보통합 준비과정으로서, 첫 번째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상이한 회계재무규칙을 단일한 회계시스템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음.

“유치원은 사학 회계재무규칙을 따르고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 재무회계규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재무회계규칙을 통일하는 게 일단 우선적으로 필요하고...회계 시스템이 지금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도 다르고요. 그게 통합이 되어야지 통합 모델로서 운영이 가능하겠죠.”(A1)

② 유보통합 시 원장 자격에 대한 논의 필요

- 유보통합 시 원장자격의 통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원장 연수 등 통합준비과정의 어려움이 예상됨.

“어린이집 원장님들 자격과 유치원 원장님들 자격이 편차가...그 많은 인원들을 언제 원장 연수를 주고 언제 할 것인지 참 그것도... 그렇죠? 또 답답하네요, 갑자기.”(A1)

③ 전환교육 강사 인력풀 준비 필요 : 기존의 누리과정 및 표준보육과정 교수 인력풀 활용

- 통합교사 자격전환을 위한 재교육 강사 인력풀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함 : 기존의 누리과정 및 표준보육과정 교수 인력풀을 활용하는 방안이 제안됨.

“육아정책연구소랑 교육부랑 보건복지부 포함해가지고 이 누리과정과 표준보육 그 교수들 인력풀들이 몇 백 명이 다 정리가 되어서 그 인력풀을 활용하면 될 거 같네요.”(A1)

④ 전환교육 실행 및 완료를 위한 예측 기한의 장기화로 어려움 예상

- 통합교사 자격전환을 위한 재교육 실행 및 완료 기한이 약 12-13년이 걸리는 어려움이 존재함.

“전환교육으로 얼마만큼 들어올 수 있을지 현직자와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략적으로 해 봤더니 그거랑 현재 우리나라의 3년제, 4년제 대학의 정원이 있잖아요. 그 정원 대비해서 이게 돌아가는 로테이션 돌아갈 수 있는 그 기간이 얼마

정도 있느냐 라고 대략 계산해 봤더니 12~13년이 걸렸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A1)

2) 서울시 보육교사를 위한 통합교사 교육과정 개발

가) 서울시 통합교사 모델 시스템 구축

- 서울시 통합교사 모델 시스템 구축은 국가의 기초를 따르되, 서울시만의 특화된 유보통합 체제 구축이 필요함.

“서울시 차원에서 이걸 통합 전환 교육을 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좀 초점을 둔 건지, 아니면 자격증은 국가에서 발급을 하지만 또 서울시 차원에서 조금 더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재교육을 할 때 어떤 게 좀 필요하면 좋을지,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거에 더 초점을 두시는지가 약간 저도 좀 헷갈리기는 했었는데, 그래서 두 가지 다 일단 생각을 한번 해보긴 했었습니다.”(A1)

나) 서울시 통합교사 재교육 특화프로그램 개발

- 서울시만의 특화된 통합교사 재교육 특화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 디지털 역량, 정보 보안교육, 회복탄력성, 생태프로그램 등

“AI나 ICT 활용 관련 디지털 역량도 되게 중요하고 학교에서도 지금 교육부 쪽에서는 이제 디지털화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련돼 가지고 교육 과목을 좀 편성하면 좋지 않을까... 디지털 역량 관련해가지고 약간 정보 보안, 정보 보안을 좀 경각심을 높이고 뭐 해킹, 악성코드 이런 정보 보안에 대한 능력을 강화하는 교육. 그다음에 요즘 개인정보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것도 디지털 역량 안에 포함이 됐는데 개인정보 침해되는 영향과 개인정보 관리하는 교육 그다음에 AI든 이런 ICT를 활용한 영유아 놀이 지원 교육 같은 그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만의 특화된 교육... 약간 심리적 위기를 좀 성공적으로 회복하는 능력이 이게 회복탄력성이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회복탄력성과 관련된 이런 교육들도 좀 개발해 가지고 좀 약간 서울형만의 특화를 만들면 더 좋지 않을까...”(A1)

“서울시에서 그 전 시장님 계실 때에는 생태 쪽에 완전히 이제 또 굉장히 집중해서 모든 어린이집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생태프로그램도 어떨까...”(A2)

3) 통합기관 유형별 교사교육과정(안)

가) 재교육 주관기관 유형과 운영방법

① 재교육 주관기관 유형과 운영방법

- 재교육 주관기관은 대학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주관 대학은 유아교육 또는 아동학과이며, 아동학과인 경우에는 교직원 관련 교수가 필수로 재직하고 있어야 됨.

“기존 자격을 보유한 사람들을 어떻게 전환을 할 건지에 대한 재교육이 가장 이슈...대학교에서 통합, 그 자격증 전환을 위한 재교육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계획을 설정하고 있고 그 대학교 전공은 유아교육과 또는 아동학과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데 아동학과 같은 경우에는 교직을 가르칠 수 있는 교수가 필수 조건이어야...”(A1)

- 재교육 과정의 운영은 대면교육이 필수이며, 평일 주간 또는 야간, 필요시 주말교육 운영 등 융통성 있게 운영될 필요가 있음.

“운영방법 같은 경우에는 평일 주간이나 야간, 필요시에는 주말 대면 교육, 무조건 필수로 대면 교육을 진행을 하되 이거는 그냥 그 옛날에 어린이집 자격증 나가는 것처럼 그냥 지원해서 사이버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필수가 대면이고...”(A1)

-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의 일원화는 필요함.

“교육과정의 루트가 되게 다양한 거는 현장의 혼란을 가중할 수 있기 때문에... 여가재단이 됐든 하여튼 교육청... 뭐 산하기관이 됐든 좀 한 곳에서 좀 유치원 교사든 보육교사든 좀 한 곳에서 교육을 좀 집중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좀 제안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A1)

- 자격증 전환을 위한 재교육 기간은 심사숙고하여 결정되어야 함.

“2년 동안에 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하면서 오랜 시간, 아까 ○교수님 말씀처럼, 오랜 시간이 걸려서 그런 전개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틀들이 잘 만들어지면 어느 위기에 있든지 재교육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A2)

- 자격증 전환을 위한 재교육 시 교육과정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적절한 유예기간이 필요함.

“이거를 절대로 1~2년 사이에 이렇게 다 전환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여유로운 유예기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급박하게 빨리 재교육해서 빨리 그냥 우수수 교사를 배출하는 거보다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질 높은 교사를 배출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 목표에 흔들리면 안 될 것 같아요.”(A3)

② 재교육 비용 부담

- 자격증 전환을 위한 재교육 비용은 교사 자부담으로 처리되어야 됨.

“두 번째는 돈이 들 경우에는 교사가 자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A1)

③ 재교육 내용

- 유치원 교사 자격증만 있으면 영아관련 교육 추가이수, 보육교사 자격증만 있으면 교직과목(교육학) 및 교육과정 문해력 관련 과목 필수 이수해야 됨.

“유치원 자격과 어린이집 자격을 둘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을 통합 자격증으로 전환하겠다는 게 기본 방안...유치원 교사 자격증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영아 교육 관련된 게 좀 추가로 이수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보육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교직 과목을 이수해야 된다...”(A1)

“영아들을 이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유치원 교사들에게는 분명히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육교사들에게는... 교육학 일반에 대한 어떤 지식이나 교육과 교육과정 문해력 뭐 이런 거와 관련돼서 조금 보육교사들에게 주어지는 것도 필요하겠 다. 특히 국가 수준 보육과정이 이제 누리과정으로 같이 가면서 물론 개인차가 있 기는 하겠지만 보육교사들에게 보육과정이라는 거 자체를 이해하는 게 사실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교육과정 문해력...”(A2)

- 보육교사 자격증만 있는 경우, 교직관련 교과목 이수는 필수임.

“지금 보육교사 자격증만 가지고 계신 분이 공부해야 될 부분은 교직 부분이잖아 요.”(A3)

④ 실습 내용

- 교육에서 실습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음.

“교육에서는 실습 비중을 좀 높이는 거는 분명히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A2)

⑤ 전환교육 강사의 질

- 전환교육과정 강사진은 현장과 이론을 갖춘 강사진으로 구성하는 것이 필수적임.

“현장과 이론을 다 알고 계신 분이라면 정말 최고로 좋은 강사진일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A2)

“유아교육과는 전문대든 4년제 대학이든 교원 양성기관 평가를 받아요. 그 교원 양성기관 평가의 기준이 현장 전문성을 갖춘 교수진이 배치되어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요소거든요...”(A3)

- 전환교육과정 강사진은 특히 현장경력이 있는 강사진으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함.

“보통 일반적으로 학교에서는 교육학과 교수님이 교직 과목을 담당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재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현장의 선생님들이고 연륜도 다양할 거고 나이대도 다양할 거고요. 그리고 이미 현장에서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이론을 얘기하는 그냥 교육학과 관련된 공부를 하는 것하고는 좀 거리가 있을 걸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인력풀을 구성할 때 현장 경험이 많은 그런 강사진을 반드시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히 교육학 전공자가 우선이 아니라 어린이집이든 뭐 유치원이든 혹은 관련 기관이든 간에 그런 현장 경험이 많은 사람이어야지 이 다양한 그런 경력과 연령과 이런 다양한 이렇게 수준 차이가 나는 뭐 이런 학력차가 나...이런 학생들, 선생님들을 다 아우르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게 그런 면에서 강사진이 정말 중요할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A2)

“어린이집 평가, 유치원 평가를 받는다고 보았을 때 그래도 그런 현장 전문가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평가진으로 활동을 하잖아요. 그럴 때도 그 기준이 그래도 현장 경력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평가단의 또 많은.. 분들은 그래도 강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발굴하면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A3)

4) '교육+보육' 융합서비스 체계 및 시설 모델 제안

가) 현행 체제를 적용한 통합기관 시스템 재구조화

- 교육+보육 융합 서비스 체계로서 통합기관 시스템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나 기존의 체제를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음 : 4가지 유형의 융합서비스 체계 및 시설 모델이 제안됨(국공립 영유아학교, 공영형 영유아학교, 사립영유아학교, 소규모 영유아학교).

“첫 번째 유형은, 국공립 영유아 학교. 이거 대상은 국공립 유치원만 해당됩니다. 두 번째 유형은 공영형 영유아 학교. 이것은 기존에 인건비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을 통칭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뭐 사회복지 어린이집도 포함되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 유형은 사립 영유아 학교. 여기의 범주는 사립 유치원 그리고 민간 어린이집 등이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4유형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영유아 학교. 여기에는 가정 어린이집을 일단은 포함을 시켰습니다.”(A1)

5. 설문지

- 초점집단인터뷰 결과를 통해 설문지 문항 작성
- 사전에 초점집단인터뷰 참여자들에게 배부된 개방형의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토대로 설문지의 영역을 구분하고 초점집단인터뷰 결과와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설문지 문항 구성
- 설문지 문항의 구성 영역은 다음과 같으며 설문지는 <부록>에 제시

〈표 2-6〉 설문지 문항의 구성 영역

구성영역	문항수	내용
I. 유보통합의 필요성과 통합교사 양성 및 전환 관련 의견	6문항	- 유보통합의 필요성 - 통합교사 양성과 전환기준 - 통합교사의 기본역량
II. 통합교사 교육과정 개발 관련 의견	4문항	- 통합교사 재교육과정 구성 내용 - 통합교사 재교육과정 시간 및 참고 매뉴얼

구성영역	문항수	내용
Ⅲ. 통합기관 유형별 교사교육과정(안)	7문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전환을 위한 통합기관 유형별 교사교육의 교육의 필요성 - 자격전환을 위한 통합기관 교사교육 운영 주최 기관 및 비용부담, 교육과정 운영기간, 운영방법 - 현직 교사의 통합교사 교육과정 내용 및 평가
Ⅳ. 영유아반 분리운영 대응 현행 어린이집 재편 방안	7문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반 분리운영 대응 재편방안 - 분리운영 시 영유아 연령별 형태, 반구성, 운영시간, 운영일수 - 재편 시 기관의 적정 규모 - 재편시 설립인가 기준 -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전환 방안
Ⅴ. '교육+보육' 융합서비스 체재 및 시설 모델	2문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보육 융합서비스 체재 및 시설 모델 구축시 고려 요소 - 융합서비스 시설모델 : 연령별 구분모델, 통합모델, 설립유형별 통합모델
Ⅵ. 기타 유보통합 관련 의견	4문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보통합에 따른 아동과 부모의 변화 - 유보통합에 따른 기관운영자와 교사의 변화 - 유보통합 운영초기에 현장에서 발행할 수 있는 혼란이나 어려움 - 유보통합 추진에 있어서 서울시의 역할
합 계	30문항	-

Ⅲ. 유보통합 필요성 및 보육현장의 통합교사 양성 및 전환

1. 유보통합 필요성

- 유보통합의 필요성에 대한 현직 유치원교사·보육교사의 응답은 <표 3-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전적으로 동의한다’ 234명(44.83%), ‘약간 동의한다’ 127명(24.33%), ‘보통이다’ 103명(19.73%),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30명(5.75%), ‘동의하지 않는다’ 28명(5.36%) 순으로 나타남. 즉 응답자의 70% 이상이 유보통합이 필요하다는 견해에 동의하고 있음을 의미함.
- 이러한 결과는 유보통합은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정부의 국정과제이며,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이들에게 평등한 출발과 공정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유보통합의 기본관점(공병호, 2022)을 지지하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라고 사료됨.

<표 3-1> 유보통합의 필요성

(N=522)

내용	N	%
전적으로 동의한다	234	44.83
약간 동의한다	127	24.33
보통이다	103	19.73
동의하지 않는다	28	5.36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30	5.75
합계	522	100

- 그러나 유보통합의 필요성에 동의하지 않는 응답, 즉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30명(5.75%), ‘동의하지 않는다’ 28명(5.36%) 총 58명으로 반대 이유는 다양하게 나타남.
-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크게 나뉘보면 다음의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
 - 첫째, 보육과 교육은 차이가 있고 영아와 유아간의 발달차이가 크고 그에 따른 지원과 보육 및 교육의 성격은 다르기 때문에 유보 통합이 아닌, 유보분리를 주장하는 의견이 있음.
 - 둘째, 유보통합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이며,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작정 통합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셋째, 유보통합의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아 보이므로 현 상태 유지를 원함.
- 넷째, 오히려 유아교육기관이 보육기관으로 하향 평준화되어 교육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며, 교사처우 일원화 시 공립교원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음.

가. 유보통합 필요성의 순위

- 유보통합에 동의하는 응답자들이 유보통합 필요성의 순위는 다음의 <표 3-2>에 제시된 바와 같이, 1순위로 ‘영유아 교육·보육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질 격차 해소’ 121명(26.1%), ‘저출산 시대 부처 통합으로 출산 장려와 시대의 변화에 따른 보편적 영유아 교육 권리와 양질의 교육·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113명(24.4%) 순으로 나타났으며, 2순위로는 ‘영유아 교육·보육 기관의 프로그램 질적 관리와 평가의 일원화’ 103명(22.2%), 영유아 교육·보육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질 격차 해소 95명(20.5%), ‘교사의 자질과 전문성의 균질성 확보 및 지원체계의 일원화’ 95명(20.5%) 순으로 나타났으며, 3순위로는 ‘교사의 자질과 전문성의 균질성 확보 및 지원체계의 일원화’ 96명(20.7%), ‘영유아 교육·보육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질 격차 해소’ 82명(17.7%)순으로 나타남.
- 특히 ‘영유아 교육·보육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질 격차 해소’는 1, 2, 3순위에 모두 선택되었다. 이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직원들이 영유아 교육 및 보육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질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유보통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표 3-2> 유보통합 필요성의 순위

<N=522>

내용	1순위		2순위		3순위	
	N	%	N	%	N	%
영유아 교육·보육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질 격차 해소	121	26.1	95	20.5	82	17.7
저출산 시대 부처 통합으로 출산 장려와 시대의 변화에 따른 보편적 영유아 교육 권리와 양질의 교육·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113	24.4	47	10.13	59	12.72
영유아 교육·보육 기관의 프로그램 질적 관리와 평가의 일원화	87	18.75	100	22.20	79	17.03
교사의 자질과 전문성의 균질성 확보 및 지원체계의 일원화	75	16.16	95	20.5	96	20.70

나. 유보통합 시 통합교사의 명칭

- 유보통합을 통해 새롭게 대두될 가칭 ‘통합교사’의 새로운 명칭에 대한 의견은 매우 다양하였으나, 그 중 영유아교사가 가장 많았으며, 지금과 동일하게 선생님, 교사, 교직원 등의 의견이 있었으며, 영유아통합교사, 통합교사의 의견도 있었음. 반면 ‘통합’이라는 단어가 장애아통합교사와 혼동될 수 있으므로 유아교사로 명명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음.
- 대표적인 응답의 예는 다음과 같음.

대표적인 응답의 예:

- | | |
|------------|----------------|
| - 유아교사 | - 유보통합교사 |
| - 교사 | - 전문교사 |
| - 누리교사 | - 영·유아교사 |
| - 통합교사 | - 유아선생님 |
| - 어린이교사 | - 영유아통합 교사 |
| - 영유아전문교사 | - 영유아교사 |
| - 영유아학교 교사 | - 선생님 |
| - 아동교사 | - 영아반교사, 유아반교사 |
| - 유아학교교사 | - 영·유아교사 |
| - 교직원 | - 아이사랑교사 |

다. 자격증의 종류 및 급수에 따른 통합교사 전환 기준

- 통합교사 전환기준은 소지한 자격증의 종류, 급수에 따라 재교육 편성 시간이 달라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응답은 <표 3-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전적으로 동의한다’ 243명(46.55%), ‘약간 동의한다’ 137명(26.25%), ‘보통이다’ 82명(15.71%), ‘동의하지 않는다’ 34명(6.5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26명(4.98%) 순으로 나타남. 이러한 결과는 응답자의 약 70%이상이 통합교사 전환기준은 소지한 자격증 종류, 급수에 따라 재교육편성 시간이 달라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고 있음을 의미함.
- 이는 유치원교사 및 보육교사 자격증의 기준이 차이가 있고, 현재 보육교사 자격최소학력 기준이 유치원 교사보다 낮으므로 통합교사 전환기준에 차등을 두는 것에 동의하는 의견이 높을 수밖에 없음.
- 그러므로 두 기관 교사 자격 기준이 일원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현행 유치원 교사 자격 기준으로 통일하는 최소학력 기준을 마련하여야 함(송경희, 2023). 전문대

학 이상의 영유아교육 관련학과로 통합을 추진하되, 기존 교사의 경우는 재교육 및 연수 과정을 통해 점차 상향 조정해가야 할 것임(최은영 외, 2022).

- 궁극적으로는 적절한 교사자격 기준과 자격체제를 갖추어서 유보통합의 목적인 질적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행 유치원 교사의 자격 기준으로 최소학력기준을 상향 통일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표 3-3〉 자격증의 종류 및 급수에 따른 전환기준의 인정

(N=522)

내용	N	%
전적으로 동의한다	243	46.55
약간 동의한다	137	26.25
보통이다	82	15.71
동의하지 않는다	34	6.5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26	4.98
합계	522	100

- 또한 자격증의 종류 및 급수에 따른 세분화된 통합교사 전환기준에 대한 현직 유치원교사/보육교사의 응답 결과는 다음의 〈표 3-4〉와 같음.

〈표 3-4〉 자격증의 종류 및 급수에 따른 세분화된 전환 기준의 인정

3-4-1 유치원 교사 1급 및 보육교사 1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는 재교육 필요하지 않음		
내용	N	%
전적으로 동의한다	243	46.55
약간 동의한다	137	26.25
보통이다	82	15.71
동의하지 않는다	34	6.5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26	4.98

3-4-2 유치원 교사 2급 및 보육교사 1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는 재교육 시간 80% 인정

내용	N	%
전적으로 동의한다	135	25.86
약간 동의한다	163	31.23
보통이다	118	22.61
동의하지 않는다	66	12.64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40	7.66

3-4-3 유치원 교사 2급 및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소지자는 재교육 시간 60% 인정

내용	N	%
전적으로 동의한다	108	20.69
약간 동의한다	158	30.27
보통이다	142	27.20
동의하지 않는다	74	14.18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40	7.66

3-4-4 유치원 교사 2급 및 보육교사 자격증 미소지자는 재교육 시간 50% 인정

내용	N	%
전적으로 동의한다	114	21.84
약간 동의한다	115	22.03
보통이다	146	27.97
동의하지 않는다	90	17.24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57	10.92

3-4-5 보육교사 1급 이상 및 유치원 교사 자격증 미소지자는 재교육 시간 40% 인정

내용	N	%
전적으로 동의한다	105	20.11
약간 동의한다	104	19.92
보통이다	135	25.86
동의하지 않는다	110	21.07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68	13.03

3-4-6 보육교사 2급, 3급 자격증 및 유치원교사 자격증 미소지자와 자격증을 소지했다라도 유치원이
나 어린이집 현장 경력이 2년 미만인 자는 재교육 시간 인정 불가

내용	N	%
전적으로 동의한다	204	39.08
약간 동의한다	108	20.69
보통이다	116	22.22
동의하지 않는다	61	11.69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33	6.32

3-4-7 유치원 교사 또는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라도 현장경력이 전혀 없는 자는 통합교사 자격증
취득 불가

내용	N	%
전적으로 동의한다	269	51.53
약간 동의한다	96	18.39
보통이다	92	17.62
동의하지 않는다	42	8.05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23	4.41

- 위의 <표 3-4>에 제시된 바와 같이, 통합교사 전환기준은 소지한 자격증의 종류, 급수에 따라 재교육 편성 시간이 달라야 한다는 의견을 좀 더 세분화 시켜서 재교육 시 인정받는 시간의 차등을 두는 의견에 대한 문항의 결과를 살펴보면, 3-4와 3-4를 제외하고 대부분 50%이상 동의한다는 의견을 나타냄.
- 즉, 현직 유치원교사/보육교사들은 자격증의 종류 및 급수에 따라 재교육 편성시간 배정에 있어서 차등을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동의하고 있으며, 따라서 통합교사 전환을 위한 재교육 시간을 편성할 때 자격증에 따라서 차등을 두어 운영해야 됨을 시사함.

라. 경력에 따른 통합교사 전환 기준

- 통합교사 전환기준은 경력에 따라 재교육 편성 시간이 달라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응답은 <표 3-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전적으로 동의한다’ 246명(47.13%), ‘약간 동의한다’ 152명(29.12%), ‘보통이다’ 71명(13.60%), ‘동의하지 않는다’ 24명(4.60%),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29명(5.56%) 순으로 나타남. 이러한 결과는 응답자의 약 70%이상 이 통합교사 전환기준은 경력에 따라 재교육편성 시간이 달라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고 있음을 의미함.

<표 3-5> 경력에 따른 전환기준의 인정

<N=522>

내용	N	%
전적으로 동의한다	246	47.13
약간 동의한다	152	29.12
보통이다	71	13.60
동의하지 않는다	24	4.60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29	5.56
합계	522	100

- 또한 경력에 따른 세분화된 통합교사 전환기준에 대한 현직 유치원교사·보육교사의 응답 결과는 다음의 <표 3-4>와 같음.

〈표 3-6〉 경력에 따른 세분화된 전환 기준의 인정 범위

3-6-1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는 재교육 필요하지 않음		
내용	N	%
전적으로 동의한다	187	35.82
약간 동의한다	115	22.03
보통이다	92	17.62
동의하지 않는다	86	16.48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42	8.05
3-6-2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경력이 15년~19년인 자는 재교육 시간 80% 인정		
내용	N	%
전적으로 동의한다	123	23.56
약간 동의한다	155	29.69
보통이다	117	22.41
동의하지 않는다	79	15.13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48	9.20
3-6-3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경력이 10년~14년인 자는 재교육 시간 60% 인정		
내용	N	%
전적으로 동의한다	106	20.31
약간 동의한다	155	29.69
보통이다	140	26.82
동의하지 않는다	75	14.37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46	8.81

3-6-4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경력이 5년~9년인 자는 재교육 시간 40% 인정

내용	N	%
전적으로 동의한다	103	19.73
약간 동의한다	149	28.54
보통이다	149	28.54
동의하지 않는다	77	14.75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44	8.43

3-6-5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경력이 2년~4년 인자는 재교육 시간 20% 인정

내용	N	%
전적으로 동의한다	108	20.69
약간 동의한다	163	31.23
보통이다	131	25.10
동의하지 않는다	74	14.18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46	8.81

3-6-6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경력이 1년 이하인 자는 재교육 시간 인정 불가

내용	N	%
전적으로 동의한다	219	41.95
약간 동의한다	104	19.92
보통이다	113	21.65
동의하지 않는다	48	9.20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38	7.28

- 위의 <표 3-6>에 제시된 바와 같이, 통합교사 전환기준은 경력에 따라 재교육 편성 시간이 달라야 한다는 의견을 좀 더 세분화 시켜서 살펴본 결과, 3-6-4를 제외하고 대부분 50%이상 동의한다는 의견을 나타냄. 이는 경력에 따라 재교육 편성시간 배정에 있어서 차등을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냄. 따라서 통합교사 전환을 위한 재교육 시간을 편성할 때 경력에 따라 차등을 두어서 운영해야 됨을 시사해줌.

마. 학력에 따른 통합교사 전환 기준

- 통합교사 전환기준은 소지한 학력에 따라 재교육 편성 시간이 달라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응답은 <표 3-7>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전적으로 동의한다’ 193명(36.97%), ‘약간 동의한다’ 141명(27.01%), ‘보통이다’ 92명(17.62%), ‘동의하지 않는다’ 54명(10.34%),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42명(8.05%)순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자격증의 종류 및 급수와 경력에 따른 문항의 응답은 응답자의 약 70%이상인 동의할 하였으나, 학력에 따른 문항에서는 63.98%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남. 즉, 학력은 자격증 및 경력에 비해 낮은 동의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60% 이상은 학력에 따라 재교육편성 시간이 달라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고 있음.

<표 3-7> 학력에 따른 전환기준의 인정

<N=522>

내용	N	%
전적으로 동의한다	193	36.97
약간 동의한다	141	27.01
보통이다	92	17.62
동의하지 않는다	54	10.34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42	8.05
합계	522	100

- 또한 학력에 따른 세분화된 통합교사 전환기준에 대한 현직 유치원교사·보육교사의 응답 결과는 다음의 <표 3-8>과 같음.

〈표 3-8〉 학력에 따른 구체적인 전환 기준의 인정 범위

3-8-1 유아교육학과 또는 아동관련 학과 4년제 이상 졸업한 자는 재교육 필요하지 않음		
내용	N	%
전적으로 동의한다	192	36.78
약간 동의한다	112	21.46
보통이다	92	17.62
동의하지 않는다	95	18.20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31	5.94
3-8-2 3년제 유아교육과 및 아동관련 학과 졸업한 자는 재교육 시간 60% 인정		
내용	N	%
전적으로 동의한다	116	22.22
약간 동의한다	151	28.93
보통이다	131	25.10
동의하지 않는다	89	17.05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35	6.70
3-8-3 2년제 유아교육과 및 아동관련 학과 졸업한 자는 재교육 시간 40% 인정		
내용	N	%
전적으로 동의한다	102	19.54
약간 동의한다	142	27.20
보통이다	146	27.97
동의하지 않는다	93	17.82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39	7.47

3-8-4 학점은행제 및 사이버대학에서 자격증을 취득한자는 자는 재교육 시간 20% 인정

내용	N	%
전적으로 동의한다	126	24.14
약간 동의한다	101	19.35
보통이다	129	24.71
동의하지 않는다	101	19.35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65	12.45

3-8-5 학력과는 무관하게 현장경력이 1년 미만인 자는 재교육 시간 인정 불가

내용	N	%
전적으로 동의한다	220	42.15
약간 동의한다	100	19.16
보통이다	106	20.31
동의하지 않는다	61	11.69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35	6.70

3-6 학력과는 무관하게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현장경력이 없는 자는 통합교사 자격취득 불가

내용	N	%
전적으로 동의한다	255	48.85
약간 동의한다	80	15.33
보통이다	90	17.24
동의하지 않는다	63	12.07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34	6.51

○ 위의 <표 3-8>에 제시된 바와 같이, 통합교사 전환기준은 학력에 따라 재교육 편성 시간이 달라야 한다는 의견을 좀 더 세분화 시켜서 살펴본 결과, 3-8-3, 3-8-4를 제외하고 대부분 50%이상 동의한다는 의견을 나타냄. 이는 학력에 따라 재교육 편성시간 배정에 있어서 차등을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따라서 통합교사 전환을 위한 재교육 시간을 편성할 때 학력에 따라 차등을 두어서 운영해야 됨을 시사해줌.

2. 서울시 통합교사에게 요구되는 기본 역량

○ 서울시 통합교사에게 요구되는 기본역량의 순위는 다음의 <표 3-9>에 제시된 바와 같이, 1순위로는 '현장실무능력' 317명(60.7%), '사회공감능력' 65(12.5%), 의사소통능력 50명(9.6%)순으로 나타났으며, 2순위로는 '의사소통능력' 165명(31.6%), '문제해결능력' 137명(26.2%), '사회공감능력' 83명(15.9%)순으로 나타남. 3순위로는 '사회공감능력' 134명(25.7%), '의사소통능력' 122명(23.4%), '문제해결능력' 118명(22.6%)순으로 나타남. 이러한 결과는 서울시 통합교사에게 요구되는 기본 역량으로 현장실무능력, 사회공감능력, 의사소통능력, 의사소통능력이 필요함을 나타낸 결과임.

<표 3-9> 유보통합 필요성의 순위

<N=522>

내용	1순위		2순위		3순위	
	N	%	N	%	N	%
현장실무능력	317	60.73	82	15.71	57	10.92
사회공감능력	65	12.45	83	15.90	134	25.67
의사소통능력	50	9.58	165	31.61	122	23.37
문제해결능력	47	9.00	137	26.25	118	22.61

IV. 서울시 보육교사를 위한 통합교사 교육과정 개발

1. 서울형 통합교사 재교육과정의 필요성

- 유보통합 추진에 따른 현직 유치원교사/보육교사 대상 통합교사 재교육과정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은 <표 4-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전적으로 동의한다’ 209명(40.04%), ‘약간 동의한다’ 165명(31.61%), ‘보통이다’ 98명(18.77%),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33명(6.32%), ‘동의하지 않는다’ 17명(3.26%)순으로 나타남. 이러한 결과는 응답자의 70%이상이 통합교사 재교육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음을 의미함.
- 유보통합에 따른 통합교사 자격 전환을 통해 교사들의 자격 기준 및 수준이 상향된다는 점은 교사들로 하여금 충분히 동기부여가 되고 있음을 의미함. 교사들이 외부환경의 변화에 따른 교사 자격 강화와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긍정적인 동의를 하고 있으므로 교사들의 현재 자격 및 경력에 따른 적합한 재교육과정이 논의되어야 할 것임.

<표 4-1> 서울형 통합교사 재교육과정의 필요성

<N=522>

내용	N	%
전적으로 동의한다	209	40.04
약간 동의한다	165	31.61
보통이다	98	18.77
동의하지 않는다	17	3.26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33	6.32
합계	522	100.00

- 서울형 통합교사 재교육과정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음.

- 각종 직무교육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음
- 유아교육과와 아동학과 전공자들을 다르게 바라보는 시각 때문에 자격전환에 따른 재교육을 하려는 의도에 반대함
- 경력교사들의 처우개선이나 인권에 대한 해결책이 우선
- 재교육에 따른 업무과중 우려
- 현장경험에 따른 재교육이 필요함

- 교사들의 학력을 조사하여 필요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재교육을 통해 통합교사 자격을 부여하는 점 반대
- 임용고시를 통해 국공립유치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들은 통합교사자격 자체를 반대

2. 서울형 통합교사 재교육과정 구성 시 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

- 통합교사 재교육과정 구성 시 중점을 두어야 할 내용에 대해 <표 4-2>에 제시된 바와 같이, 1순위 ‘영유아-교사 상호작용’ 254명(53.8%), ‘인성, 건강, 안전 등 생활중심교육’ 112명(23.7%), ‘영유아의 문제행동 지도 및 교육’ 80명(16.9%) 순으로 나타났으며, 2순위 ‘인성, 건강, 안전 등 생활중심교육’ 149명(31.6%), ‘영유아의 문제행동 지도 및 교육’ 149명(31.6%), ‘영유아-교사 상호작용’ 129명(27.3%) 순으로 나타남. 3순위 ‘영유아의 문제행동 지도 및 교육’ 183명(38.8%), ‘학부모 상담’ 101명(21.4%), ‘인성, 건강, 안전 등 생활중심교육’ 77명(16.3%) 인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현장의 교사들이 ‘영유아-교사 상호작용’, ‘인성, 건강, 안전 등 생활중심교육’, ‘영유아의 문제행동 지도 및 교육’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표출한 것으로 보임. 이는 영유아발달에 따른 개별화된 교육 및 영유아의 기질에 따른 교사의 바람직한 상호작용 등을 재교육과정에 포함시켜 교사의 요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한편, ‘학부모 상담’과 관련한 교육의 필요성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관에서의 영유아 행동, 또래관계, 상호작용 등에 대해 학부모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이나 학기 초 진행되는 학부모 상담 등과 관련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학부모와의 연계를 위해 요구되는 교사의 전문역량과 연계하여 재교육과정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이처럼 유보통합에 따른 교사의 재교육과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에 대한 교사들의 체계적인 요구수렴을 통해 교사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현장에서 보다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표 4-2〉 서울형 통합교사 재교육과정의 필요성

(N=472)

내용	1순위		2순위		3순위	
	N	%	N	%	N	%
영유아-교사 상호작용	254	53.81	129	27.33	47	9.96
인성, 건강, 안전 등 생활중심교육	112	23.73	149	31.57	77	16.31
영유아의 문제행동 지도 및 교육	80	16.95	149	31.57	183	38.77
장애영유아를 위한 교육	7	1.48	18	3.81	29	6.14
학부모상담	3	0.64	20	4.24	101	21.40
기관운영관리	9	1.91	5	1.06	29	6.14

3. 서울형 통합교사 재교육과정의 편성

- 통합교사 재교육과정이 편성되어야 하는 적절한 시간은 언제인지에 대한 응답은 〈표4-3〉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주중 야간’ 192명(40.68%), ‘주말’ 138명(29.24%) 순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통합교사 재교육과정이 보육 및 교육시간에 이루어짐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보육 및 교육공백의 우려가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교사들의 업무시간에 재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한 부담감 가중에 대한 우려 또한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추후 재교육을 편성할 때에 야간 및 주말을 활용하여 교사들의 업무 가중과 보육 및 교육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표 4-3〉 서울형 통합교사 재교육과정의 편성

내용	N	%
주중 야간	192	40.68
주말	138	29.24

4. 서울형 통합교사 재교육과정 구성 시 참고할 만한 매뉴얼

- 통합교사 재교육과정 구성시 참고가 될 만한 기존 자료나 매뉴얼은 무엇인지에 대한 응답은 〈표4-4〉에 제시된바와 같이, ‘국공립 어린이집 매뉴얼’ 201명

(42.58%), ‘평가제 매뉴얼’ 157명(33.26%), ‘유치원 운영지침서’ 55명(11.65%) 순으로 나타남.

- 현장에 있는 교사들은 각종 평가 및 운영지침에 따른 매뉴얼에 따라 교육 및 보육을 행하고 있다. 국가에서 설립한 국공립 어린이집의 운영을 최적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공립 어린이집 매뉴얼과 어린이집 평가를 위해 보육진흥원에서 제시하는 평가제 매뉴얼 등을 통해 현장에서는 어린이집의 최적화를 실행해 오고 있음. 유치원 또한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구성된 유치원 운영지침서를 통해 유아교육을 실행해 오고 있음. 이는 국가에서 만든 기존의 매뉴얼을 통합환경에 맞게 구성하여 재교육 자료로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해주는 것임.

〈표 4-4〉 서울형 통합교사 재교육과정 구성시 참고할 만한 매뉴얼

(N=427)

내용	N	%
국공립 어린이집 매뉴얼	201	42.58
공공형 어린이집 매뉴얼	9	1.91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매뉴얼	5	1.06
평가제 매뉴얼	157	33.26
유치원 운영지침서	55	11.65

V. 통합기관 유형별 교사 교육과정(안)

1. 통합기관 유형별 자격전환 재교육 교사교육과정의 필요성

- 유보통합 추진에 따른 현직 유치원교사/보육교사 대상 통합기관 유형별 자격전환 필요성에 대한 응답은 <표 5-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전적으로 동의한다’ 207명(39.66%), ‘약간 동의한다’ 163명(31.23%), ‘보통이다’ 110명(21.07%),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27명(5.17%), ‘동의하지 않는다’ 15명(2.87%)순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응답자의 70%이상이 자격전환 재교육 교사교육과정이 필요하다고 동의하고 있음을 의미함. 유보통합에 따른 현직교사의 자격전환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며 현직교사의 자격을 하나의 체계로 전환하는 것은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나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자격전환 교사교육과정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표 5-1> 통합기관 유형별 자격전환 재교육 교사교육과정의 필요성

내용	N	%
전적으로 동의한다	207	39.66
약간 동의한다	163	31.23
보통이다	110	21.07
동의하지 않는다	15	2.87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27	5.17
합계	522	100.00

2. 통합기관 유형별 자격전환 재교육 교사교육과정 운영 주관기관

- 현직 유치원교사/보육교사 대상 자격 전환을 위한 통합기관 유형별 교사교육과정 운영 주관 기관에 대한 응답은 <표 5-2>에 제시된 바와 같이 1순위로 ‘서울시 교육청’ 249명(47.7%), ‘서울시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위탁교육기관’ 85명(16.3%) 순으로 나타났다. 2순위로는 ‘(3,4년제) 정규대학의 유아교육과’ 126명

(24.1%), ‘서울시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위탁교육기관’ 85명(16.3%) 순으로 나타났으며, 3순위로는 ‘(3,4년제) 정규대학의 아동 및 보육 관련학과’ 130명(24.9%), ‘서울시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위탁교육기관’ 85명(16.3%) 순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유보통합은 공교육 차원에서 영유아기 교육과 돌봄이 실현되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음. 현 정부에서는 “첫 출발부터 공정하고 질 높은 교육”이라는 슬로건으로 국정과제 안에 유보통합을 제시하고(교육부, 2022) 교육부 업무계획으로 포함하였음. 따라서 통합영유아교사(가칭) 자격 전환 재교육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사료됨. 더불어 (3,4년제) 정규대학의 유아교육과나 (3,4년제) 정규대학의 아동 및 보육 관련학과와 같이 대학에서 재교육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의 편차를 줄이고 학점이수 중심이 아닌 학교차원의 학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고 하겠음.

〈표 5-2〉 통합기관 유형별 자격전환 재교육 교사교육과정 운영 주관 기관

내용	1순위		2순위		3순위	
	N	%	N	%	N	%
서울시 교육청	249	47.7	77	14.8	74	14.2
(3,4년제) 정규대학의 유아교육과	83	15.9	126	24.1	55	10.5
(3,4년제) 정규대학의 아동 및 보육 관련 학과	30	5.7	80	15.3	130	24.9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28	5.4	85	16.3	68	13
서울시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위탁기관	85	16.3	107	20.5	111	21.3
방송통신대학교	14	2.7	21	4	42	8
사이버대학교	22	4.2	18	3.4	25	4.8
기타	11	2.1	8	1.6	17	3.3
-	522	100	522	100	522	100

3. 통합기관 유형별 자격전환 재교육 교사교육과정 비용 부담

- 현직 유치원교사·보육교사 대상 자격 전환을 위한 통합기관 유형별 교사교육과정 비용부담에 대한 응답은 〈표 5-3〉에 제시된 바와 같이 ‘국가 부담’ 358명(68.6%), ‘개인 부담 + 국가 부담’ 129명(24.7%) 순으로 나타났음.
- 이러한 결과는 유보통합이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교사 자격 전환 역시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음.

〈표 5-3〉 통합기관 유형별 자격전환 재교육 교사교육과정 비용 부담

내용	N	%
개인 부담	24	4.6
국가 부담	358	68.6
개인 부담 + 국가 부담	129	24.7
기타	11	2.1
-	522	100

4. 통합기관 유형별 자격전환 재교육 교사교육과정 운영기간

- 현직 유치원현직 유치원교사·보육교사 대상 자격 전환을 위한 통합기관 유형별 교사교육과정 운영 교육시간 및 숙련기간에 대한 응답은 〈표 5-4〉에 제시된 바와 같이 ‘6개월’ 285명(54.6%), ‘1년’ 100명(19.16%), ‘2년’ 47명(9%) 순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결과는 응답자들의 과반수 이상이 자격 전환 재교육과정 기간은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함.

〈표 5-4〉 통합기관 유형별 자격전환 재교육 교사교육과정 운영 기간

내용	N	%
6개월	285	54.6
1년	100	19.2
2년	47	9
기타	90	17.2
-	522	100

5. 통합기관 유형별 자격전환 재교육 교사교육과정 운영 방법

- 현직 유치원교사·보육교사 대상 자격 전환을 위한 통합기관 유형별 교사교육과정 운영 방법에 대한 응답은 〈표 5-5〉에 제시된 바와 같이 ‘대면+비대면 혼합’ 138명(26.44%), ‘비대면(동영상)’ 138명(26.44%), ‘대면(주중)’, ‘대면(주말)’ 65명(12.45%), ‘비대면(실시간)’ 52명(9.96%), ‘대면(야간)’ 30명(5.75%) 순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결과는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자격 전환 재교육과정 운영은 대면교육 보다는 비대면교육을 선호함을 의미함.

〈표 5-5〉 통합기관 유형별 자격전환 재교육 교사교육과정 운영 방법

내용	N	%
대면(야간)	30	5.7
대면(주중)	80	15.3
대면(주말)	65	12.5
비대면(동영상)	138	26.4
비대면(실시간)	52	10
대면+비대면 혼합	138	26.4
기타	19	3.7
-	522	100

6. 통합기관 유형별 자격전환 재교육 교사교육과정 내용

- 현직 유치원교사·보육교사 대상 자격 전환을 위한 통합기관 유형별 교사교육과정 내용은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했을 때, 〈표 5-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영아발달 및 영아지도, 영아실습, 통합 교육과정 및 연계, 통합기관 이해, 부모·가족·지역사회·사회환경, 장애아·특수아동 이해 및 지도 모두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음. 또한,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했을 때 〈표 5-7〉에 제시된 바와 같이 유아발달 및 유아지도, 통합 교육과정 및 연계, 통합기관 이해, 교직 관련(교직이론, 교직소양), 교육실습(유아실습), 장애아·특수아동 이해 및 지도 모두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음.
- 이러한 결과는 유보통합에 따른 교사의 전문성을 위해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 모두 스스로 역량을 강화하고 배우고 성장하고자 함을 의미한다고 하겠음. 이를 위해 교사의 노력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체제 마련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표 5-6〉 유치원교사 대상 재교육 교사교육과정 내용

내용	영아발달 및 영아지도		영아실습		통합 교육과정 및 연계		통합기관 이해		부모·가족·지역사회·사회환경		장애아·특수아동 이해 및 지도	
	N	%	N	%	N	%	N	%	N	%	N	%
매우 필요하다	374	71.65	334	63.98	320	61.30	306	58.62	248	58.62	273	52.30
약간 필요하다	76	14.56	80	15.33	103	19.73	118	22.61	114	22.61	115	22.03
보통이다	48	9.20	67	12.84	75	14.37	74	14.18	121	14.18	108	20.69
필요하지 않다	11	2.11	24	4.60	11	2.11	10	1.92	23	1.92	12	2.30
매우 필요하지 않다	13	2.49	17	3.29	13	2.49	14	2.68	16	2.68	14	2.68
-	522	100	522	100	522	100	522	100	522	100	522	100

〈표 5-7〉 보육교사 대상 재교육 교사교육과정 내용

내용	유아발달 및 유아지도		통합 교육과정 및 연계		통합기관 이해		교직 관련 (교직이론+교직소양)		교육실습 (유아실습)		장애아·특수아동 이해 및 지도	
	N	%	N	%	N	%	N	%	N	%	N	%
매우 필요하다	312	59.77	312	59.77	300	57.47	291	55.75	229	43.87	254	48.66
약간 필요하다	93	17.82	113	21.65	114	21.84	16	3.07	108	20.69	118	22.61
보통이다	83	15.90	71	13.60	84	16.09	88	16.86	107	20.50	124	23.75
필요하지 않다	16	3.07	11	2.11	11	2.11	116	22.22	46	8.81	13	2.49
매우 필요하지 않다	18	3.45	15	2.87	13	2.49	11	2.11	32	6.13	13	2.49
-	522	100	522	100	522	100	522	100	522	100	522	100

7. 통합기관 유형별 자격전환 재교육 교사교육과정 평가

- 현직 유치원교사·보육교사 대상 자격 전환을 위한 통합기관 유형별 교사교육과정 평가에 대한 응답은 <표 5-8>에 제시된 바와 같이 ‘무시험검정’이 333명(63.22%), ‘자격 시험’이 160명(30.65%) 순으로 나타났음.
- 이러한 결과는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자격 전환 재교육과정 이수만으로 자격 전환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음.

<표 5-8> 통합기관 유형별 자격전환 재교육 교사교육과정 평가

내용	N	%
무시험 검정	330	63.22
자격시험	160	30.65
기타	32	6.13
-	522	100

Ⅵ. 영·유아반 분리운영 대응 현행 보육시설 재편 방안

1. 기관 재편 후 분리운영 필요성

- 다양한 유형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재편하여 분리운영한다는 내용에 대해 동의하는지에 대한 응답은 <표 6-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전적으로 동의한다’ 166명(31.80%), ‘약간 동의한다’ 126명(24.14%), ‘보통이다’ 123명(23.56%),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54명(10.34%), ‘동의하지 않는다’ 53명(10.15%) 순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결과는 50%이상의 응답자들이 기존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다양한 유형을 재편하여 기관의 분리운영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음을 의미함. 다만, ‘보통이다’는 의견이 20% 이상인 점에 미루어볼 때에, 교사들은 기존 본인들이 근무하고 있는 기관이 재편하여 분리운영될 때에 본인들이 받게 될 영향력에 대한 우려가 내포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유보통합 및 기관의 재편에 따른 교사들의 부정적 영향이나 불안이 감소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제공 및 교사들의 이익을 우선으로 할 수 있는 정책모색이 요구됨.

<표 6-1> 기관재편 후 분리운영 필요성

내용	N	%
전적으로 동의한다	166	31.80
약간 동의한다	126	24.14
보통이다	123	23.56
동의하지 않는다	53	10.15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54	10.34
합계	522	100.00

- 기관재편 후 분리운영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
 - 영유아 분리는 안 된다
 - 감독 및 총괄을 교육청이나 교육부로 일원화
 - 통합 후 다시 분리할 필요 없음

- 한 기관에서 영아와 유아 모두 운영
- 운영은 현재와 동일하게 하고, 교사자격만 재편성
- 영아반을 운영할지, 유아반을 운영할지는 기관의 자율에 맡겨야 함
-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영유아학교(가칭)라는 이름으로 통일하고, 각 기관의 특성에 따라 반을 편성하여, 부모의 선택에 맡기도록 해야 함

2. 기관 재편 후 분리운영 시 영유아 연령별 적합한 반구성

- 기관을 재편하여 분리 운영할 때에 영유아의 연령별 어떠한 형태로 반구성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응답은 <표 6-2>에 제시된 바와 같이, ‘만 0~2세와 만 3~5세 연령에 따른 명확한 구성’ 332명(63.60%), ‘만 0~2세와 만 3~5세 구분만 하고 연령은 통합하여 구성’ 78명(14.94%), ‘만 0~1세와 만 2~5세 연령에 따른 명확한 구성’ 69명(13.22%), ‘만 0~1세와 만 2~5세 구분만 하고 연령은 통합하여 구성’ 16명(3.07%) 순으로 나타났음.
- 이러한 결과는 교사들은 영아의 범위를 0~1세 혹은 0~2세로 하고, 유아의 범위를 3~5세 혹은 2~5세로 하여 영유아를 구분하고, 영아 연령별 운영 혹은 통합 운영, 유아 연령별 운영 혹은 통합 운영과 같이 영아와 유아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인식한다는 것을 보여줌.
- 유치원은 만3~5세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가정어린이집은 만 0~2세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기에 영유아 분리운영에 대한 정책 실행 시 그리 우려할 사항이 많지 않을 것임. 하지만 다른 유형의 어린이집(국공립, 직장, 민간, 법인 등)은 0~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기에 영아반을 운영할지, 유아반을 운영할지에 대한 기관마다 많은 고민이 예상됨. 따라서 기관을 재편하는 데 있어 기관별 염려사항에 대한 체계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기관운영의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표 6-2> 기관 재편 후 분리운영 시 영유아 연령별 적합한 반구성

내용	N	%
만0~2세와 만3~5세 연령에 따른 명확한 구성	332	63.60
만0~2세와 만3~5세 구분만 하고 연령은 통합하여 구성	78	14.94
만0~1세와 만2~5세 연령에 따른 명확한 구성	69	13.22
만0~1세와 만2~5세 구분만 하고 연령은 통합하여 구성	16	3.07

○ 답변 이유

- 영아와 유아의 발달수준이 매우 다르므로 영아반, 유아반 운영 명확하게 해야 함
- 같은 영아라 하더라도 월령에 따라 발달수준이 다르기에 영아반이라고 할지라도 명확한 연령별 반구성 필요
- 영아는 애착, 유아는 교육 중요
- 0세부터 교육부에서 행정 일원화
- 영아반끼리 혼합, 유아반끼리 혼합반을 운영하던지, 연령별로 운영하던지 자율로 하되, 영아반과 유아반의 명확한 구분 필요
- 영아는 어린이집, 유아는 유치원에서 담당
- 영아는 보건복지부에서, 유아는 교육부에서 담당
- 영아전문교사, 유아전문교사로 구분
- 영아특성화 어린이집, 유아특성화 어린이집으로 구분

3. 기관 재편 후 분리운영 시 영유아 연령 구분

- 기관을 재편하여 분리 운영할 때에 영유아의 연령을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지에 대한 응답은 <표 6-3>에 제시된 바와 같이, ‘만 0~2세와 만 3~5세 구성’ 409명(78.35%), ‘만 0~1세와 만 2~5세 구성’ 89명(17.05%) 순으로 나타났음.
- 이러한 결과는 교사들은 영아의 범위를 0~1세 혹은 0~2세로 하고, 유아의 범위를 3~5세 혹은 2~5세로 하여 영유아를 구분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줌. 이와 같이 응답한 이유에 대해, 영아와 유아의 발달수준이 다르기에 영아반과 유아반을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었고, 영아는 애착, 월령에 따른 개인차, 기질에 따른 개별화 보육 등에 따른 영아전담교사의 보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이 가장 많았음. 또한 유아들의 경우 연령별 엄격한 반구성이나 연령통합 운영구성 등에 대한 응답과 함께 유아들을 위한 최적화된 교육을 위한 교사 대 유아의 수를 줄여서 유아-교사의 상호작용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6-3> 기관 재편 후 분리운영 시 영유아 연령 구분

내용	N	%
만0~2세와 만3~5세 구성	409	78.35
만0~1세와 만2~5세 구성	89	17.05

○ 답변 이유

- 영아와 유아의 발달수준이 매우 다르므로 영아반이라고 할지라도 연령별로 반을 구성해야 함
- 영아는 애착, 친밀, 기질에 따른 보육 등 필요
- 영아전담교사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기관을 분리하여 영아만 다니는 기관, 유아만 다니는 기관으로 해야 함
- 영아는 어린이집, 유아는 유치원에서 담당
- 영아는 보육, 유아는 교육중심으로 운영해야 함
- 교사 대 유아의 비율 감소 필요

4. 기관 재편 시 운영시간과 운영일수

- 기관을 재편할 때에 운영시간과 운영일수를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응답은 <표 6-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주 5일 종일반’ 307명(58.81%), ‘주 5일 반일반’ 185명(35.44%), ‘주 6일 종일반’ 5명(0.96%)의 순으로 나타났음.
- 이러한 결과는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주 5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함. 종일반 운영이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교사들은 맞벌이 부모의 요구 및 사회적 요구에 따른 기관의 존재 이유를 언급했으며, 반일반 운영이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교사들은 보육 및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반일반 운영 필요, 부모와 자녀의 상호작용 시간 필요, 종일반운영으로 인한 교사의 업무과중 등을 이유로 언급했음.
- 이에 대해서는 기관의 존재이유에 대한 명확한 사회적 요구 및 흐름에 따라 운영시간 관련 수요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안심보육, 영유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 부모책임에 대한 국가의지원 등을 통해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출산하여, 기관에 맡길 수 있는 국가적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수요조사를 통해 반일반이나 종일반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영유아가 안심보육 및 교육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임.

<표 6-4> 기관 재편 시 운영시간과 운영일수

내용	N	%
주 5일 종일반	307	58.81
주 6일 종일반	5	0.96
주 5일 반일반	185	35.44

○ 답변 이유

- 맞벌이 부부를 위해 종일반 운영
- 부모도 아이와 상호작용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반일반 운영
- 교사의 업무과중
- 교사는 반일반, 이후 시간은 보조교사 활용
- 보육공백 최소화를 위해 종일반 필요
- 사회적 요구로 인한 종일반 욕구 높음
- 종일반의 경우 영유아의 정서적 문제 야기
- 부모의 양육에 대한 책임 부여
- 미취업상태의 부모는 반일반을 선택하도록 해야 함

5. 기관 재편 시 기관의 적정 규모

- 기관을 재편할 때에 기관의 적정 규모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는지에 대해 <표6-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지금의 기관규모를 토대로 유치원, 어린이집 동일하게 아동비율을 적용한다’ 258명(49.43%), ‘기관의 유형별로 아동비율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 236명(45.21%)이 응답하였음.
- 이와 같이 응답한 이유에 대해,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실 크기도 다르고, 교사 대 영유아의 비율이 다르게 적용되는 점에 대한 기준의 통일을 요구하는 내용이 많았음. 기관 재편할 때에 기관의 크기에 따라 영아를 위해 적합한 기관인지, 유아를 위해 적합한 기관인지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체계나 기준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음.
- 이에 대해서는 추후 기관재편 시 영유아의 발달수준에 따른 환경 적합도 등을 내용으로 하여 자체점검 및 지자체의 모니터링이 요구됨.

<표 6-5> 기관 재편 시 기관의 적정 규모

내용	N	%
지금의 기관규모를 토대로 유치원, 어린이집 동일하게 아동비율을 적용한다	258	49.43
기관의 유형별로 아동비율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	236	45.21

○ 답변 이유

- 기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사 대 아동비율 및 교실 크기가 다른데 이것을 동일하게 해야 함
- 교사대 영아 비율을 줄여야 함

- 교사 대 유아 비율을 줄여야 함
- 규모를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해야 함
- 장애영유아를 위한 교실 규모 및 반편성에 대한 기준도 동일해야 함
- 장애영유아를 위한 반 구성 시 교사 대 아동비율의 조정 필요

6. 기관 재편 시 설립 인가 기준

- 기관을 재편할 때에 설립인가 기준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기는지에 대해 <표 6-6>에 제시된 바와 같이,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기준을 정한다’ 330명(63.22%), ‘각 시군구에서 기준을 정한다’ 107명(20.50%), ‘별도 인가 기준 기관을 정한다(서울시 여성가족재단 등)’ 60명(11.49%) 순으로 응답하였음.
- 이와 같이 응답한 이유에 대해, 유보통합 예산을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만큼 교육부에서 기준을 정해서 배분해야 함. 영아반 운영과 유아반 운영 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차별적인 문제에 대해 재점검을 통해 차별 없이 예산을 배분해야 한다는 내용이 많았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예산 배정 시 영아와 유아를 위한 비용 재산출과 교사들의 동일한 처우 등과 관련한 내용을 기반으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표 6-6> 기관 재편 시 설립 인가 기준

내용	N	%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기준을 정한다	330	63.22
각 시군구에서 기준을 정한다	107	20.50
별도 인가기준 기관을 정한다(서울시 여성가족재단 등)	60	11.49

- 답변 이유
 - 교육부에서 배분해야 한다
 - 예산관리 등을 하나의 기관에서 담당해야 한다
 - 현재 어린이집교사와 유치원교사에 대한 처우가 다르므로 이를 개선해야 한다
 - 영아와 유아를 위한 비용 재산출을 통해 차별없이 배정해야 한다
 - 영유아 차별, 교사 차별 등을 개선해야 한다

7. 기존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전환 방향

- 기존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전환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표 6-7>에 제시한 바와 같이, ‘기존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유형을 그대로 두고, 영유아 연령에 따라 기관을 나눈다’ 234명(44.8%), ‘기존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유형 중 국공립과 민간 두 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영유아 연령에 따른 반구성을 하도록 하여 학부모가 선택하도록 한다’ 181명(34.7%), ‘기존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유형 중 규모가 작은 곳은 영아전담으로 전환한다’ 86명(16.5%) 순으로 응답하였음.
- 이는 교사들은 영아와 유아를 위한 기관의 분리와 국공립과 민간의 분리를 통해 원 운영의 자율성을 유지하고, 학부모의 선택을 중요시하고 있음을 의미함. 그리고 가정어린이집과 같이 소규모로 영아전담으로 운영되는 경우, 지금과 같은 운영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낫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기관의 규모와 기관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영아중심으로 운영할지, 유아중심으로 운영할지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며, 국공립 체계를 유지할 지, 민간형 체계를 유지할 지에 대한 선택도 기관장을 비롯한 교사와 학부모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유보통합을 통해 영아와 유아 모두 하나의 시스템 내에서 차별 없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되, 기관전환에 대한 고민은 현재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당사자들과 학부모들이 함께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 6-7> 기존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전환 방향

내용	N	%
기존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유형을 그대로 두고, 영유아 연령에 따라 기관을 나눈다	234	44.8
기존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유형 중 국공립과 민간 두 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영유아 연령에 따른 반구성을 하도록 하여 학부모가 선택하도록 한다	181	34.7
기존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유형 중 규모가 작은 곳은 영아전담으로 전환한다	86	16.5

○ 답변 이유

- 기관의 특성에 맞게 부모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기관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기관장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 현재 운영체계를 유지하되, 연령만 분리해야 함
- 영아전담, 유아전담 식으로 기관을 나누되 지원을 동일하게 해야 함

Ⅶ. 기타 유보통합 관련 의견

1. 유보통합에 따른 핵심 당사자의 변화

가. 아동 및 부모의 변화

- 유보통합에 따른 아동과 부모의 변화순위는 다음의 <표 7-1>에 제시된 바와 같이, 1순위로는 ‘교육과정의 연계로 아동의 체계적이고 일관된 교수학습경험 제공’ 174명(33.3%) 2순위로는 ‘통합기관에 대한 부모의 신뢰감 향상’ 163명(31.2%), 3순위로는 ‘질 높은 교육 프로그램으로 아동의 긍정적인 발달 도모’ 155명(29.7%)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결과는 교육과정의 연계로 아동에게 일관된 교수 학습경험 제공을 기대하고 있으며, 유보통합이 기관에 대한 부모의 신뢰감을 향상시키고 아울러 보다 질 높은 교육 프로그램으로 아동의 긍정적인 발달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을 의미함.
-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이들에게 평등한 출발과 공정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유보통합의 기본 관점임(공병호, 2022). 우리나라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의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 및 보육 서비스 질에 대한 부모의 신뢰감 향상이 중요한 이슈가 되었고, 영유아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일원적 관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전반적인 서비스의 질 향상을 기대하는 시대적 사회적 요구 반영도 중요한 이유가 되었음(이해리나, 2016).
- 그러므로 유보통합을 통해 아동과 부모가 모두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 모든 아동의 건전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기를 기대함.

<표 7-1> 유보통합에 따른 아동 및 부모 변화의 순위

<N=522>

내용	1순위		2순위		3순위	
	N	%	N	%	N	%
교육과정의 연계로 아동의 체계적이고 일관된 교수학습경험 제공	174	33.33	161	31.23	115	22.03
질 높은 교육프로그램으로 아동의 긍정적인 발달 도모	161	30.84	116	22.22	155	29.69
통합기관에 대한 부모의 신뢰감 향상	128	24.52	163	30.84	157	30.08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42	8.05	62	11.88	72	13.79

나. 기관운영자(원장) 및 교사의 변화

- 유보통합에 따른 기관운영자(원장)와 교사의 변화순위는 다음의 <표 7-2>에 제시된 바와 같이, 1순위로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근무환경 차이 해소’ 209명(40%) 2순위와 3순위 모두 ‘교사의 근무여건 개선’ 152명(29.1%), 교사의 근무여건 개선 115명(22%)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이러한 결과는 현장에서 유보통합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근무환경 차이를 해소하고, 교사의 근무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을 의미함.
- 이는 유보통합으로 얻어지는 긍정적 측면으로, 교사의 처우개선과 교사의 근무 시간 조정 등으로 장시간 근로 관행이 개선되고, 시간선택제 보육·교육 등으로 탄력적 운영이 가능해지며 표준비용을 주기적으로 재산정함으로써 운영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기존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음(최윤경·박창현·하연섭·김희수, 2016).

<표 7-2> 유보통합에 따른 기관운영자 및 교사의 변화의 순위

<N=522>

내용	1순위		2순위		3순위	
	N	%	N	%	N	%
유아교육과 보육의 근무환경 차이 해소	209	40.04	116	22.22	84	16.1
교사의 근무여건 개선	84	16.09	152	29.12	115	22
교사의 전문적인 교수 역량 강화 80명(15.3%)	80	15.33	85	16.28	97	18.6
질 높은 교육과 돌봄 환경의 확보 73명(14%)	73	13.98	75	14.37	97	18.6

다. 유보통합 운영 초기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이나 어려움

- 유보통합 초기에 현장에서 발생 할 수 있는 혼란이나 어려움으로 예상되는 순위는 다음의 <표 7-3>에 제시된 바와 같이, 1순위는 ‘통합기관으로의 전환 준비의 어려움(비용, 전환 기준에 대한 이해부족 등)’ 206명(39.5%) 2순위는 ‘운영재정측면의 두 기관의 상이한 시스템의 혼란’ 126명(24.1%), 3순위는 ‘운영시간, 운영일수, 교사 대 아동비율 등의 혼란’ 105명(20.1%)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이러한 결과는 현장에서 유보통합 운영 초기에 통합기관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비용이나 전환기준에 대해 이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을 예상하고 있으며, 운

영재정측면에서도 상이한 회계 시스템의 일원화로 인한 혼란, 운영시간, 일수, 교사대 아동비율 등의 혼란이 예상된다.

- 유보통합의 문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간의 단순한 통합이 아니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직원, 회계시스템, 관련 인사, 관련 환경 등 복합적이고도 광범위한 격차해소의 과제가 있음. 따라서 단기적인 시행보다는 장기적인 계획 아래 부작용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착륙시키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표 7-3〉 유보통합 초기 발생할 수 있는 혼란 및 어려움의 순위

(N=522)

내용	1순위		2순위		3순위	
	N	%	N	%	N	%
통합기관으로의 전환 준비의 어려움(비용, 전환 기준에 대한 이해부족 등)	206	39.46	106	20.31	81	15.52
통합교사 자격전환 기준의 어려움	113	21.65	109	20.88	117	22.41
운영재정측면의 두 기관의 상이한 시스템의 혼란	109	20.88	126	24.14	100	19.16
운영시간, 운영일수, 교사 대 아동비율 등의 혼란	41	7.85	65	12.45	105	20.11

라. 서울시 특화프로그램

- 서울시만의 특화된 프로그램 주제 순위는 다음의 〈표 7-4〉에 제시된 바와 같이, 1 순위는 ‘아동중심철학에 기반을 둔 다양한 놀이중심 프로그램’, 2순위와 3순위는 모두 ‘행복한 교사를 위한 교사 힐링 프로그램’ 124명(23.75%), ‘행복한 교사를 위한 교사 힐링 프로그램’ 111명(21.26%)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이러한 결과는 아동중심, 놀이중심의 누리과정과 관련한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과 교사를 위한 힐링 프로그램이 서울시의 특화 프로그램으로 개발되기를 요구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서울시만의 특화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음.

〈표 7-4〉 서울시 특화프로그램 순위

〈N=522〉

내용	1순위		2순위		3순위	
	N	%	N	%	N	%
아동중심철학에 기반을 둔 다양한 놀이중심 프로그램	305	58.43	108	20.69	49	9.39
생태체계 관련 프로그램	67	12.84	110	21.07	84	16.09
행복한 교사를 위한 교사 힐링 프로그램	62	11.88	124	23.75	111	21.26
4차 산업혁명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	39	7.47	70	13.41	89	17.05

마. 통합교사 자격증 전환의 유예기간

- 현직 유치원교사/보육교사 대상 자격증 전환의 유예기간에 대한 응답은 〈표 7-5〉에 제시된 바와 같이 ‘2년’ 220명(42.15%), ‘3년’ 161명(30.84%), ‘4년’ 10명(1.92%), ‘5년’ 94명(18.01%) 순으로 나타났음.
- 이러한 결과는 응답자들의 과반수 이상이 자격 전환 재교육과정 기간은 2년에서 3년 정도가 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함.

〈표 7-5〉 통합교사 자격증 전환의 유예기간

〈N=522〉

내용	N	%
2년	220	42.15
3년	161	30.84
4년	10	1.92
5년	94	18.01
-	522	100

VIII. ‘교육+보육’ 융합 서비스 체계 및 시설 모델 제안

1. ‘교육+보육’ 융합 서비스 체계 및 시설 모델 구축 시 고려되어야 할 요소

- ‘교육+보육’ 융합 서비스 체계 및 시설 모델 구축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요소에 대한 응답은 <표 8-1>에 제시된 바와 같이 1순위로는 ‘영유아 연령(영아, 유아, 영유아혼합 등)’ 198명(37.9%), 2순위로는 ‘교사고용 및 자격’ 204명(39.1%), 3순위로는 ‘수요자(영유아와 학부모)’ 171명(32.8%)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결과는 영아와 유아의 발달적 차이를 인정하고, 지금까지 유지되어 오던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차이를 새로운 모델 체제에 반영하기를 희망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개별 영유아와 가정의 다양성에 출발하였기 때문에 다양성의 강점을 살리면서 공공성을 강화하는 형태로 구축되어야 할 것임.

<표 8-1> 교육+보육’ 융합 서비스 체계 및 시설 모델 구축 시 고려되어야 할 요소

내용	1순위		2순위		3순위	
	N	%	N	%	N	%
설립주체	107	20.5	65	12.5	79	15.1
교사고용 및 자격	131	25.1	204	39.1	144	27.6
수요자(영유아와 학부모)	82	15.71	137	26.2	171	32.8
영유아 연령(영아, 유아, 영유아혼합 등)	198	37.93	114	21.8	125	23.9
기타	4	0.76	2	0.4	3	0.6
전체	522	100	522	100	522	100

2. ‘교육+보육’ 융합 서비스 체계 및 시설 모델

- ‘교육+보육’ 융합서비스 체제 및 시설 모델에 대한 응답은 <표 8-2>에 제시된 바와 같이 0~2세, 3~5세 분리 모델과 관련하여 ‘전적으로 동의한다’ 273명(52.30%), ‘약간 동의한다’ 109명(20.88%)으로 응답하여 70% 이상이 영아와 유아를 분리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0~5세 통합 모델은 ‘보통이다’ 164명(31.42%), ‘동의하지 않는다’ 113명(21.65%),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62명(11.88%)으로 응답하여 상대적으로 영아와 유아 통합은 동의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음. 더불어 설립유형별 통합모델에 대해서는 ‘보통이다’ 158명 (30.27%), ‘전적으로 동의한다’ 155명(29.69%), ‘약간 동의한다’ 123명 (23.56%)로 50%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러한 결과는 유보통합이 교육부로 부처가 일원화되어 0~5세 유보통합이 진행되었을 때, 0~2세 영아학교와 3~5세 유아학교를 기초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설립 유형을 고려하여 단계적 통합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함.

〈표 8-2〉 교육+보육’ 융합 서비스 체계 및 시설 모델

내용	0~2세, 3~5세 분리모델		0~5세 통합모델		설립유형별 통합모델	
	N	%	N	%	N	%
전적으로 동의한다	273	52.30	102	19.54	155	29.69
약간 동의한다	109	20.88	81	15.52	123	23.56
보통이다	94	18.01	164	31.42	158	30.27
동의하지 않는다	31	5.94	113	21.65	46	8.8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5	2.87	62	11.88	40	7.66
전체	522	100	522	100	522	100

IX. 결론

1. 연구의 결론

가. 유보통합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및 자격전환을 위한 재교육에 대한 의견

- 유보통합의 핵심 이해 당사자인 현직 유치원교사·보육교사는 모두 유보통합의 필요성에 약 70%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였음. 이러한 결과는 유보통합에 대한 현직 교사들의 인식이 긍정적이며, 유보통합이 영유아의 생애 출발점에서 기회 평등, 아동 권리 보장, 교사들의 직업에서의 평등이라는 전체를 충족시키기 위해 출발한 정책임을 인정하고, 유보통합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 자격전환을 위한 재교육에 대한 현직 교사들의 의견은 자격증의 종류, 급수, 경력, 학력에 따라 재교육 시간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부분 50%가 동의하고 있음. 이는 자격전환을 위한 재교육 운영 시 자격증의 종류, 현장경력, 학력을 합리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임.

나. 통합교사 교육과정 개발 관련 의견

- 유보통합 추진에 따른 현직 유치원교사·보육교사 대상 통합교사 재교육과정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으므로 서울시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현재 자격 및 경력에 따른 적합한 재교육과정이 논의되어야 할 것임. 현재에도 서울시 교사들은 「서울특별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21)」 8조 1항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 보호 관련 교육 지원사업’ 및 「서울특별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21)」 22조 1항 ‘보수교육 등 종사자 교육 훈련비용’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에 따라 각종 직무교육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으므로 이와 연계해서 교사들이 자격전환으로 인한 불공평한 처우염려를 하지 않도록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임.
- 통합교사 재교육과정 구성 시 중점을 두어야 할 내용에 대해 현장의 교사들이 ‘영유아-교사 상호작용’, ‘인성, 건강, 안전 등 생활중심교육’, ‘영유아의 문제행동 지도 및 교육’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는 것은 이와 관련하여 현장의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의미함. 2019 코로나로 인해 영유아-교사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영유아의 문제행동의 증대를 우려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교사교육을 구성하는 것이 교사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임.
- 통합교사 재교육과정은 주중야간이나 주말에 이루어지도록 하여 통합교사 재교육과

정으로 인한 보육 및 교육공백을 최소화해야 할 것임. 또한 교사들은 업무시간내의 교육을 업무의 과중이라 인식하고 있으므로 추후 교육과 관련하여 시간을 편성할 때에 참고할 수 있을 것임.

- 통합교사 재교육과정 구성시 참고가 될 만한 기존 자료나 매뉴얼과 관련해서 국공립어린이집 매뉴얼, 서울형 어린이집 매뉴얼, 평가제 매뉴얼, 유치원 운영지침서 등 기존의 매뉴얼을 통합환경에 맞게 구성하여 재교육 자료로 충분히 활용 가능할 것임.

다. 통합기관 유형별 교사교육과정(안)

- 지금까지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제도와 양성과정, 임용 및 배치, 처우 등이 다르게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유보통합에 따른 서울형 통합영유아교사(가칭) 자격 전환 재교육이 필요함. 특히, 유보통합 이후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을 유치원 교사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자격 전환 재교육 교사교육과정이 필요함.
- 현 정부에서는 “첫 출발부터 공정하고 질 높은 교육”이라는 슬로건으로 국정과제 안에 유보통합을 제시하고, 교육부 업무계획으로 포함하였기에 서울형 통합영유아교사(가칭) 자격 전환 재교육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특히, 유희정 외(2008)의 보고서에서는 교직과목을 운영할 역량이 있는 양성기관에서 재교육을 진행해야 책임성과 내실 있는 교육연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였기 때문에 서울시 교육청 주도 정규대학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현재 영유아교사 양성 체제에서는 영유아교사 전문성의 균질성에 대한 합의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영아와 유아의 발달과 교육학 등 여러 측면에서 교육과정과 운영방법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유보통합에 따른 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 모두 스스로 역량을 강화하고 배우고 성장해야 함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교사의 노력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체제 마련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유치원과 어린이집 현직 교사 대상으로 한시적 자격연수가 시행될 필요가 있으며 추가 이수 과목은 유아교사의 경우 영아발달과 지도와 관련된 과목 이수를 제안하며 보육교사의 경우 유아관련 교과목과 교직 과목 이수를 제안함.

라. 영유아반 분리운영 대응 현행 어린이집 재편 방안

- 다양한 유형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재편하여 분리운영한다는 내용에 대해 교사들

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었으나, 기존 본인들이 근무하고 있는 기관이 재편하여 분리운영될 때에 본인들이 받게 될 영향력에 대한 염려가 있었음. 따라서 유보통합 및 기관의 재편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및 교사들의 이익을 우선으로 할 수 있는 정책모색이 요구됨.

- 기관을 재편하여 분리 운영할 때에 영유아의 발달수준 및 개별특성을 반영하여 영아반과 유아반의 명확한 구분이 요구됨. 영아반의 연령범위, 유아반의 연령범위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여, 영아반 내에서의 엄격한 연령구분 혹은 통합, 유아반 내에서의 엄격한 연령구분 혹은 통합 등과 관련하여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뿐만 아니라 영아반, 유아반의 엄격한 분리와 함께 교사 대 영유아의 수를 줄여서 유아-교사의 상호작용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도 모색이 되어야 할 것임.
- 기관을 재편할 때에는 주5일 운영하되 반일반, 종일반을 이용하는 학부모의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보육 및 교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의 유형에 따라, 접근성에 따라 학부모와 영유아의 불편함이 없도록 논의가 필요함.
- 기관을 재편할 때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실 크기도 다르고, 교사 대 영유아의 비율이 다르므로 이와 관련한 기준을 통일하는 것과 더불어, 영아를 위해 적합한 기관인지, 유아를 위해 적합한 기관인지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체계나 기준이 요구됨. 이에 대해서는 추후 기관재편 시 영유아의 발달수준에 따른 환경 적합도 등을 내용으로 하여 서울시의 기준체계를 통해 가능할 것임.
- 기관을 재편할 때에 설립인가 기준은 유보통합 예산을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만큼 교육부에서 기준을 정해서 배분해야 한다는 내용이 많았음. 이는 예산과 관련하여 현재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에 비해 적은 지원을 받고 있음에 대해 차별적인 측면을 표출한 것으로 유보통합 예산의 공평한 배정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기존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전환과 관련하여 교사들은 영아와 유아를 위한 기관의 분리와 국공립과 민간의 분리를 통해 원 운영의 자율성을 유지하고, 학부모의 선택을 중요시하고 있음을 나타냈음. 그리고 가정어린이집과 같이 소규모 영아전담으로 운영되는 경우, 지금과 같은 운영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낫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의 규모와 기관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영아중심으로 운영할지, 유아중심으로 운영할지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며, 국공립 체계를 유지할지, 민간형 체계를 유지할지에 대한 선택도 기관장을 비롯한 교사와 학부모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마. ‘교육+보육’ 융합서비스 체계 및 시설 모델

- ‘교육+보육’ 융합서비스 체재 및 시설 모델 구축을 위해 영유아 연령, 교사고용 및 자격, 수요자(영유아와 학부모)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이러한 결과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영유아를 위한 교육과 보육은 이원화 체제로 분리 운영되어왔으며 연령을 기준으로 개별성과 다양성의 특성을 반영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운영되어 왔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음. 이는 영유아를 위한 교육과 보육이 공교육체제 안에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으나 영유아와 가정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여 기관을 설립한 것이 근본적인 이유임을 조부경 외(2022)는 지적하고 있음. 즉, 하나의 유형의 학교에 학생이 다니게 하는 방식의 초등학교가 아닌 영유아교육기관은 영유아와 가정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진 여러 형태의 기관으로 이루어져 있고, 수요자인 영유아와 학부모가 선택을 하는 방식이었음. 따라서 유보통합에 따른 ‘교육+보육’ 융합서비스 체재 및 시설 모델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다양성의 강점을 살리면서 공공성을 강화하는 형태로 구축되어야 할 것임.
- ‘교육+보육’ 융합서비스 체계 및 시설 모델은 교육부가 주관부서가 되어 0-2세 영아학교와 3-5세 유아학교를 기초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설립유형을 고려한 단계적 통합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바. 유보통합의 이해당사자(아동, 부모 기관운영자, 교사)의 변화와 어려움에 대한 의견

- 유보통합의 이해당사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와 유보통합 시행 초기에 현장에서 ‘통합기관으로서의 전환 준비의 어려움’, ‘운영·재정측면의 두기관의 상이한 시스템의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응답하였음. 이러한 결과는 유보통합에 대한 긍정적 변화에 대한 기대와 통합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장기적인 계획과 점진적인 통합과정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함.

2. 정책 제언

- 핵심적 이해 당사자인 보육 및 교육기관 관계자(교사와 원장) 모두 유보통합의 필요성에 대해 70%는 동의하고 있으나, 동의하지 않는 의견도 존재하는데, 유보통합의 필요성과 긍정적 효과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가 무리하게 유보통합 정책을 추진하게 될 때 나타나는 정책갈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유보통합 중요 이해당사자들이 공감하지 못하고 수용할 수 없는 정책집행은 집행이 되더라도 그것이 의도한 효과를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음. 그러므로 정부에서 유보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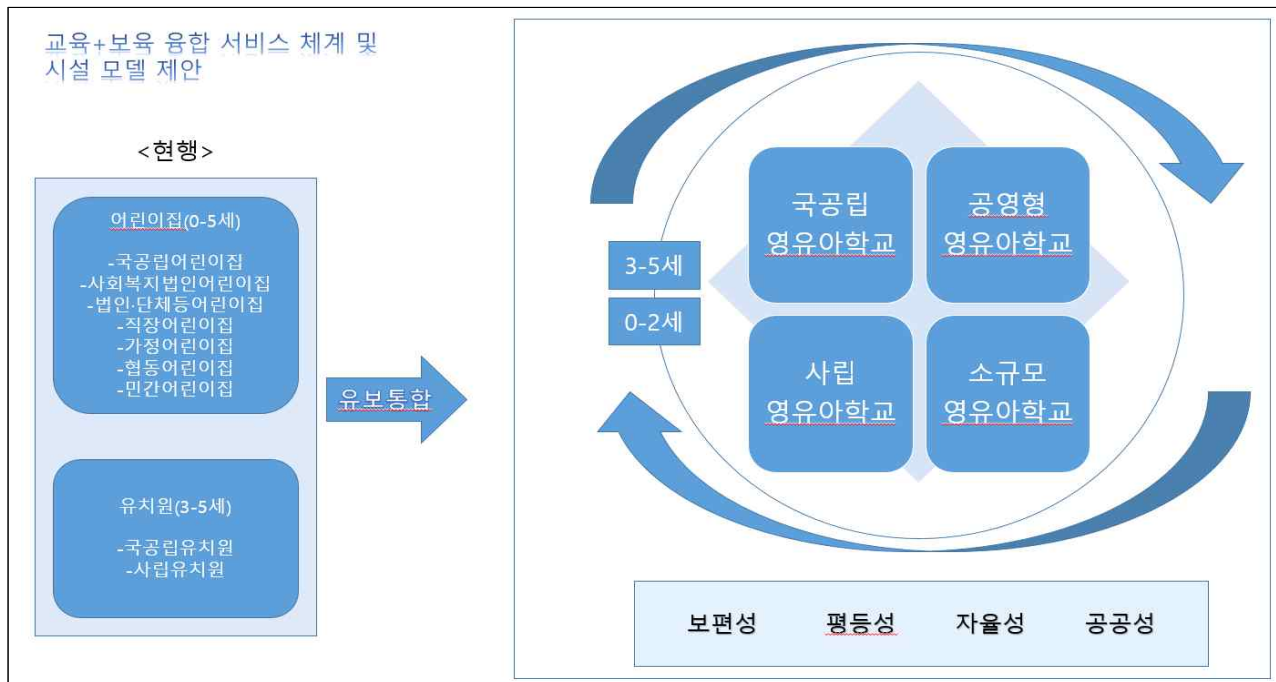
합의 본질적인 목적과 기본관점(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이들에게 평등한 출발과 공정한 기회를 제공해야 함) 및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홍보, 즉 TV, 인터넷 방송, 인쇄매체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기획 홍보, 캠페인, 정책 소개 등을 통해 유보통합의 이해당사자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을 포함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또한 본 연구에서는 또 다른 핵심적 이해 당사자인 부모를 연구대상에 포함시키지 못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부모를 포함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통합교사 자격 전환기준에 자격증의 종류, 급수, 경력, 학력에 따라 재교육 시간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부분 동의하고 있으며, 특히 ‘자격증 소지자라도 현장경력이 없는 경우에는 통합교사 자격증 취득이 불가’에 다른 무엇보다 동의율이 높았음. 이는 자격증 취득이 용이한 보육교사 자격증의 장롱면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크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임. 또한 현직 교사의 경우, 자격 전환을 위한 재교육 시 자격증의 종류, 현장 경력, 학력을 합리적으로 인정해 주는 다각적인 방법의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유보통합의 핵심은 ‘영유아’이므로 영유아들의 보육 및 교육에서의 공백이나 차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에서 기반으로 하고 있는 매뉴얼을 토대로 운영체계를 만들고 학부모, 기관,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새로운 매뉴얼을 완성할 수 있을 것임.
- 어린이집 교사 및 유치원 교사들이 느낄 수 있는 차별적 조항 및 불평등 조항에 대한 내용의 개선을 통해 통합교사의 내용이 교사들의 전문성을 보다 향상시켜주는 것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 및 홍보가 필요함.
- 유보통합을 통해 국가의 기관운영에 대한 의지와 교사들의 자격강화 등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기관 및 교사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성해야 함.
- 유보통합 시행 시 대상자(아동과 부모), 기관 운영자와 교사 모두에게 긍정적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므로, 아동과 부모, 교사가 모두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 모든 아동의 건전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는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향으로 발맞춰갈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공평하고 합리적인 제도와 정책 시행이 필요함.

- 유보통합 시행 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첫 번째 혼란이나 어려움으로 '통합기관으로서의 전환 준비의 어려움(비용, 전환기준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을 꼽았는데, 유보통합이 단순히 어린이집과 유치원간의 단순한 통합이 아닌 복합적이고 광범위한 격차해소의 과제가 있으므로 정부의 유보통합 정책이 단기적인 시행보다는 장기적인 계획 아래 부작용과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겠음.
- 서울시의 통합교사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초점집단인터뷰를 통해 교사의 디지털 역량을 증진하는 프로그램, 교사의 심리적 회복탄력성을 증진하는 프로그램, 생태프로그램 등 교사와 영유아를 위한 서울시만의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이 추후 연구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서울특별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는 본 조례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와 지원을 통해 보육교직원의 인권 증진 및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하여 보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음. 이를 근거로 '자격전환의 재교육 비용' 등 유보통합관련 비용을 서울시에서 부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유아교육과 보육은 오랜 기간 서로 다른 색깔을 가지고 발전해온 분야이므로, 서로의 특성을 무리하게 축소하기보다는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점진적인 방식을 추구해야 함. 이 과정에서 교사 양성기준과 자격체계에 대한 점진적인 통합이 이루어져야 하며 두 분야의 상향 평준화를 목표로 해야 함. 아울러 현행 유보기관의 현장과 교사 자격 차이를 고려한 담당 부처 간 교사 재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기존의 이루어졌던 다양한 연수에 대한 통합계획과 시행을 위한 장단기계획도 필요함. 무엇보다 이를 통해 공정과 상식의 원리에 기반을 두어 어떤 기관도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유보통합 중에 중요한 과제인 교사 통합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유치원정교사 2급을 위한 이수학점은 전공영역(기본이수과목, 교과교육영역, 선택과목) 50학점 이상이며, 교직영역(교직이론, 교직소양, 교육실습) 22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는데 비해, 보육교사 2급을 위한 이수학점은 교사인성, 보육지식과 기술, 보육실무 총 17개 과목 51학점임. 이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지닌 교사들의 추가 교직학점 이수 필요에 대한 논란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함. 따라서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지닌 교사들 중 교직교과목의 추가이수를 통해 통합교사 자격에서의 유아반 담당의 당위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

음. 다만, 교직영역(교직이론, 교직소양, 교육실습) 22학점 이상이 아닌 교직이론, 교직소양, 교육실습에서의 필수교과목을 선정하여 이수학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아울러 현직 보육교사 자격전환을 위한 재교육 시 교직과목 이수에 있어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예를 들어 일반 교직과목 축소 등)이 논의되어야 될 필요가 있음.

- 유보통합에 따른 서울형 ‘교육+보육’ 융합 서비스 체계 및 시설 모델은 영유아교육을 ‘희망’하는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편성과 평등성, 자율성이 확보된 생애 초기의 공정한 출발을 보장하며, 사립과 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적이고 균형적인 발전으로 공공성을 강화해야 함. 따라서 0~2세 영아학교와 3~5세 유아학교를 기초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설립유형을 고려하여 단계적 통합이 이루어지길 제안함. 이를 그림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교육부는 유보통합의 일환으로 선도교육청을 지정하여 교육과 돌봄의 질을 높이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서로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선제적 지원을 하고 있음. 현재 영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 지원이 어려운 실정임. 법령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서 영아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함. 특히 서울시 선도교육청은 공동 교육과정(프로그램) 운영, 교사 역량 강화 지원, 학부모의 자녀 양육역량 강화, 안전한 교육과 돌봄 환경 조성 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나, 관련 과제들이 영아와 유아, 나아가 학부모와 교사 모두의 행복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의 초석이 될 수 있길 제안함.

〈 참고 문헌 〉

■ 단행본

- 유희정, 이미화, 장명림, 김은설, 김은영, 송신영, 「유치원과 보육시설 일원화체제를 위한 협력과 통합 방안」, 육아정책개발센터, 2008.
- 이옥, 김은설, 신나리, 문무경, 최혜선, 「육아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유아교육·보육의 협력과 통합 방안」, 육아정책개발센터, 2006.
- 최은영, 문무경, 김은영, 최윤경, 양미선, 강은진, 김동훈, 김아름, 김문정, 「유아교육·보육 통합을 위한 단계적 추진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2022.

■ 연구논문

- 고가온, 2020, 유아교육과 보육기관의 통합(유보통합) 정책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 인식 연구, 인문사회 21, 11(6), 17-32.
- 고영미, 서윤희, 임수진, 박수경, 2022, 영유아학교체제 기반 유보통합 정책 방향 및 단계별 방안, 유아교육연구, 42(6), 541-570.
- 고재욱, 2022, 새 정부 유보통합 정책 전문가 요구도 연구, 한국보육학회 학술대회자료집, 48-78.
- 공병호, 2022, 유·보통합의 경위와 향후 과제, 교육비평, 49, 8-41.
- 김대욱, 2023, 유보통합을 위한 0-5세 영유아교사 자격과 영유아교육과 중심 양성체제, 그리고 기존 교원의 영유아교사 자격 부여 방안, 열린유아교육연구, 28(3), 1-27.
- 김대욱, 박창현, 2022, 교육부 중심 0-5세 유아학교 모델(안)의 단계별 정책 방향과 과제: 설립주체와 교사고용의 관점을 중심으로,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8(6), 569-580.
- 김대웅, 박윤현, 2023, 토픽 모델링을 활용한 '유보통합' 뉴스기사 동향 분석, 열린유아교육연구, 28(3), 297-313.
- 김대홍, 2023, 유보통합을 위한 대만의 '유아교육 및 보육법'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34(1), 475-503.
- 김미애, 조은경, 2023, 미국의 K-학년제와 주립 유아학교 정책을 통해 본 우리나라 유보통합을 위한 유아교육 정책 방향, 유아교육연구, 43(1), 449-484.
- 도남희, 구자연, 신나리, 강규돈, 2022, 보육서비스 질제고,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부터, 육아정책 Brief, 2023.7.31., 1-6.
- 류미향, 박선미, 2023, 뉴질랜드 유보통합 추진 과정과 영유아교육 체제 탐구, 유아교육연구, 43(2), 277-323.
- 문미옥, 2022, 유보통합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나아가야 할 방향, 한국유아교육학회

- 정기학술발표논문집, 2022(2), 119-139.
- 박명하, 2022, 새 정부 유보통합 정책 전문가요구도 연구에 대한 토론문, 한국보육학회 학술대회자료집, 88-91.
- 박진아, 2023, 2023-2028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수요 전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3(12), 539-557.
- 송경희, 김태연, 2023, 유보통합에 대비한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 자격의 현황 및 과제, 한국영유아보육학, 139, 25-45.
- 이귀옥, 한수진, 2023, 어린이집 교사의 유보통합 교사 자격제도 및 양성과정에 관한 의견 조사, 아동부모학회지, 9(1), 61-100.
- 이선애, 강혜경, 2023, 유보통합에 대한 연구동향 분석: 2013년~2022년 7월까지의 논문을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3(3), 555-567.
- 이진권, 엄문영, 2023, 유보통합 재정소요 추계 연구, 교육재정경제연구, 32(2), 1-29.
- 이해리나, 2016, 유보통합에 의한 시설유형 및 공간구성 계획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부연, 2023, 유보통합에서 돌봄에 대한 학문적 탐구, 영유아교육과정연구, 13(1), 102-128.
- 임수진, 박수경, 2022, 유보통합의 관점에서 살펴본 유아교육·보육 재정의 현황과 과제, 한국유아교육학회 정기학술발표논문집, 2022(2), 223-225.
- 정효정, 2022, 아동권익 관점의 유보통합을 위한 논점과 제언, 한국영유아보육학, 136, 77-101.
- 조부경, 고영미, 임수진, 2022, 유보통합의 지향점에 대한 고찰, 유아교육연구, 42(6), 571-594.
- 최윤경, 박창현, 하연섭, 김희수. 2016, 유보통합 정착을 위한 실행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최은영, 2015, 한국유아교육과 보육 통합의 선결과제, 육아정책연구, 9(1), 257-377.
- 황성일, 김선희, 2023, 동아시아 3개국의 유보통합에 관한 연구 - 한국, 일본, 대만의 법제를 중심으로 -, 동북아법연구, 16(4), 55-94.

■ 기타 참고

한국유아교육신문, 2022.5, 새정부, 여전히 뜨거운 유보통합.

■ 해외문헌

Caldwell, B., 1991, Educare: New product, new future.

- Developmental and Behavioral Pediatrics, 12(3), 199-205.
- Kellogg, W., O' Brien, K., Robey, C. and Toth, K. (2007), The Use of Focus Groups for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Environmental Administrative Programs: A Comparison of Two State-Level Processes in Ohio, *Environmental Practice*, 9(3): 166-178.
- Morgan, D. (1998), *The Focus Group Guidebook*, Thousand Oaks, CA: SAGE.
- Sheila, T. (1998), An Analysis of the Effectiveness of Focus Group as a Method of Qualitative Data Collection with Chinese Population in Nursing Research, *Journal of Advanced Nursing*, 28(3): 654-661.
- Smith, A. B., 1996a, *Early Childhood Educare: Quality Programmes Which Care and Educate*.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 403 053).
- Smith, A. B., 1996b, *Quality Programs That Care and Educate*. *Childhood Education*, 72(6),330-336.

I-2

귀하는 유보통합을 통해 새롭게 대두될 가칭 '통합교사'의 명칭은 어떤 이름으로 명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좋은 명칭을 제안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신 경우는 기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통합교사 양성과 전환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구 분	① 전적으 로 동의한 다	② 약간 동의한 다	③ 보통이 다	④ 동의하 지 않는다	⑤ 전혀 동의하 지 않는다
I-3 통합교사 전환기준은 소지한 자격증의 종류, 급수에 따라 재교육 편성 시간이 달라야 한다.					
I-3-①②③ (3번의 ①, ②, ③이라고 답한 경우) 통합교사 전환기준이 자격증 종류, 급수에 따른 재교육시간 편성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3-1 유치원 교사 1급 및 보육교사 1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는 재교육 필요하지 않음					
3-2 유치원 교사 2급 및 보육교사 1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는 재교육 시간 80% 인정					
3-3 유치원 교사 2급 및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소지자는 재교육 시간 60% 인정					
3-4 유치원 교사 2급 및 보육교사 자격증 미소지자는 재교육 시간 50% 인정					
3-5 보육교사 1급 이상 및 유치원 교사 자격증 미소지자는 재교육 시간 40% 인정					
3-6 보육교사 2급, 3급 자격증 및 유치원교사 자격증 미소지자와 자격증을 소지했다라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현장경력이 2년 미만인 자는 재교육 시간 인정 불가					
3-7 유치원 교사 또는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라도 현장경력이 전혀 없는 자는 통합교사자격증 취득 불가					
3-6 기타 의견 ()					
I-3-④,⑤ (3번의 ④, ⑤라고 답한 경우) 동의하지 않는다'의 이유를 적어주십시오.					
(이유)					

구 분	① 전적으로 동의한다	② 약간 동의한다	③ 보통이다	④ 동의하지 않는다	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I-4 통합교사 전환기준은 경력에 따라 재교육 편성 시간이 달라야 한다.					
I-4-①②③ (3번의 ①, ②, ③이라고 답한 경우) 통합교사 전환기준이 경력에 따른 재교육시간 편성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4-1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 는 재교육 필요하지 않음					
4-2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경력이 15년~19년인 자는 재교육 시간 80% 인정					
4-3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경력이 10년~14년인 자는 재교육 시간 60% 인정					
4-4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경력이 5년~9년인 자 는 재교육 시간 40% 인정					
4-5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경력이 2년~4년 인자 는 재교육 시간 20% 인정					
4-6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현장경력이 1년 이하인 자는 재교육 시간 인정 불가					
4-7 기타 의견 ()					
I-4-④⑤ (3번의 ④, ⑤라고 답한 경우) 동의하지 않는다'의 이유를 적어주십시오.					
(이유)					

구 분	① 전적으 로 동의한 다	② 약간 동의한 다	③ 보통이 다	④ 동의하 지 않는다	⑤ 전혀 동의하 지 않는다
I-5 통합교사 전환기준은 학력에 따라 재교육 편성 시간 달라야 한다.					
I-5-①②③ (3번의 ①, ②, ③이라고 답한 경우) 통합교사 전환기준이 학력에 따른 재교육시간 편성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5-1 유아교육학과 또는 아동관련 학과 4년제 이상 졸업한 자는 재교육 필요하지 않음					
5-2 3년제 유아교육과 및 아동관련 학과 졸업한 자는 재교육 시간 60% 인정					
4-3 2년제 유아교육과 및 아동관련 학과 졸업한 자는 재교육 시간 40% 인정					
4-4 학점은행제 및 사이버대학에서 자격증을 취득 한자는 재교육 시간 20% 인정					
4-5 학력과는 무관하게 현장경력이 1년 미만인 자 는 재교육 시간 인정 불가					
4-6 학력과는 무관하게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현 장경력이 없는 자는 통합교사 자격취득 불가					
4-7 기타 의견 ()					
I-5-④⑤ (3번의 ④, ⑤라고 답한 경우) 동의하지 않는다'의 이유를 적어주십시오.					
(이유)					

III-6 현직 유치원교사/보육교사 대상 자격 전환을 위한 통합기관 유형별 교사교육과정 내용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자격 전환 재교육 대상	교육 내용	① 매우 필요하다	② 약간 필요하다	③ 보통이다	④ 필요하지 않다	⑤ 매우 필요하지 않다
III-6-1 유치원교사	영아발달 및 영아지도					
	영아실습					
	통합 교육과정 및 연계					
	통합기관 이해					
	부모/가족/지역사회/사회환경					
	장애아/특수아동 이해 및 지도					
	기타(추가로 요구되는 교육 내용을 자유롭게 서술해 주세요)	(추가)				
III-6-2 보육교사	유아발달 및 유아지도					
	통합 교육과정 및 연계					
	통합기관 이해					
	교직 관련(교직이론, 교직소양)					
	교육실습(유아실습)					
	장애아/특수아동 이해 및 지도					
	기타(추가로 요구되는 교육 내용을 자유롭게 서술해 주세요)	(추가)				

III-7 현직 유치원교사/보육교사 대상 자격 전환을 위한 통합기관 유형별 교사교육과정 평가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① 무시함 검정 ② 자격시험 ③ 기타()

구 분	① 전적으 로 동의한 다	② 약간 동의한 다	③ 보통이 다	④ 동의하 지 않는다	⑤ 전혀 동의하 지 않는다
IV-1 현행 어린이집과 유치원에는 다양한 유형이 존재합니다. 기관을 재편하여 분리 운영한다는 내용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IV-1-1 ‘④,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에 응답하신 이유를 적어주세요					

IV-2 귀하는 기관을 재편하여 분리 운영할 때에 영유아 연령별 어떠한 형태로 반구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만0~2세와 만3~5세 연령에 따른 명확한 구성
- ② 만0~2세와 만3~5세 구분만 하고 연령은 통합하여 구성
- ③ 만0~1세와 만2~5세 연령에 따른 명확한 구성
- ④ 만0~1세와 만2~5세 구분만 하고 연령은 통합하여 구성
- ⑤ 기타()

IV-2-1 이유를 적어주세요

(
)

IV-3 귀하는 기관을 재편하여 분리 운영할 때 영유아 연령별 어떠한 형태로
반구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만0~2세와 만3~5세 구성
- ② 만0~1세와 만2~5세 구성
- ③ 기타()

IV-3-1 이유를 적어주세요

()

IV-4 귀하는 기관을 재편하여 통합할 때 운영시간과 운영일수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주5일 종일반
- ② 주6일 종일반
- ③ 주5일 반일반
- ④ 주6일 반일반
- ⑤ 기타()

IV-4-1 이유를 적어주세요

()

IV-5 귀하는 기관을 재편할 때 기관의 적정 규모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지금의 기관규모를 토대로 유치원 어린이집 동일하게 아동비율을 적용한다
- ② 기관의 유형별로 아동비율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
- ③ 기타()

IV-5-1 이유를 적어주세요

()

IV-6 귀하는 기관을 재편할 때에 설립인가 기준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기준을 정한다
- ② 각 시군구에서 기준을 정한다
- ③ 별도 인가기준 기관을 정한다(서울시 여성가족재단 등)
- ④ 기타()

IV-6-1 이유를 적어주세요
()

IV-7 귀하는 기존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전환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기존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유형을 그대로 두고, 영유아 연령에 따라 기관을 나눈다.
- ② 기존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유형 중 국공립과 민간 두 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영유아 연령에 따른 반구성을 하도록 하여 학부모가 선택하도록 한다.
- ③ 기존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유형 중 규모가 작은 곳은 영아전담으로 전환한다.
- ④ 기타()

IV-7-1 이유를 적어주세요
()

V-1 ‘교육+보육’ 융합서비스 체제 및 시설 모델 구축을 위해 고려되어 할 요소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가장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순서대로 3가지를 선택해서 번호를 적어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	--	-----	--	-----	--

- ① 설립주체
- ② 교사고용 및 자격
- ③ 수요자(영유아와 학부모)
- ④ 영유아 연령(영아, 유아, 영유아혼합 등)
- ⑤ 기타()

V-2

다음과 같은 ‘교육+보육’ 융합서비스 체제 및 시설 모델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구 분	① 전적으로 동의한다	② 약간 동의한다	③ 보통이다	④ 동의하지 않는다	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V-2-① 0-2세, 3-5세 구분모델					
V-2-② 0-5세 통합모델					
V-2-③ 설립유형별 통합모델 - 국공립 유치원 → 국공립 영유아학교 - 기존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서울형 등) → 공영형 영유아학교 - 사립유치원, 민간어린이집 등 → 사립 영유아학교 - 가정어린이집 → 소규모 영유아학교					
V-2-④ 기타 의견					

VI-6 귀하는 유보통합이 시행되는 경우, 대상자(아동과 부모)에게 어떠한 변화를 가져 올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다음 중 아동과 부모에게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되는 순서대로 3가지를 선택해서 번호를 적어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	--	-----	--	-----	--

- ① 질 높은 교육프로그램으로 아동의 긍정적인 발달 도모
- ②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 ③ 통합기관에 대한 부모의 신뢰감 향상
- ④ 교육과정의 연계로 아동의 체계적이고 일관된 교수학습경험 제공
- ⑤ 기타()

VI-7 귀하는 유보통합이 시행되는 경우, 기관 운영자와 교사를 포함하여 현장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다음 중 현장에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되는 점을 순서대로 3가지를 선택해서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	--	-----	--	-----	--

- ① 교사의 전문적인 교수 역량 강화
- ② 유아교육과 보육의 근무환경 차이 해소
- ③ 교사의 근무여건 개선
- ④ 질 높은 교육과 돌봄 환경의 확보
- ⑤ 유아교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 ⑥ 기타()

유보통합 대응 서울시 보육의 질 향상과 영유아반 분리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관한 연구

발행처 :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발행인 :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장 김상인

주관부서 : 보건복지위원회(수석전문위원 주병준, 입법조사관 이정화)
법제담당관(법제담당관 장혜명, 주무관 김대인, 주무관 이상규)

홈페이지 : <http://www.smc.seoul.kr>

연락처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전화) 02-2180-8146 (보건복지문위원실)
전화) 02-2180-7904 (법제담당관)

과제제안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연구기관 : (사)미래복지경영

책임연구 : 이준우

연락처 : 02-525-1751

발간등록번호 : 51-6110100-000310-01

※ 본 학술연구용역보고서의 지식재산권은 서울특별시의회와 용역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내용은 서울특별시의회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식재산권은 서울특별시의회와 용역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되, 서울특별시의회가 해당 학술연구용역 보고서를 대국민 공개한 이후 용역수행자가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있음)